

3040 세대의 가정사역 방향성 연구: 응암교회 사례를 중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매러디스 솔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정진욱 목회학박사

송민근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6년 5월

Copyright © 2026 Min Geun Song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EXPLORING THE DIRECTION OF FAMILY MINISTRY FOR THE 30–40
GENERATION:
A CASE STUDY OF EUNGAM CHURCH**

Min Geun Song

Eungam Church, Seoul, Korea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necessity of family ministry for the 30–40 generation in the Korean church, to present a pastoral model for family-centered faith formation based on biblical and theological foundations, and to propose practical strategies for applying this model in the context of local church ministry.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first examines generational theory in Korean society, changes in family structure, and shifts in church perception among people in their thirties and forties, including the phenomenon known as “Canaan Christians.”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30–40 generation tends to understand faith within the context of individualistic values and diverse social experiences. Although many parents in this generation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ir children's faith education, they often experience difficulties in practicing faith within the home.

In addition, as a case study, this research analyzes the ministry for the 3040 generation at Eungam Church (응암교회) and examines the spiritual realities of church

members through a survey. The results indicate that although many parents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faith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concrete practices such as family worship and faith conversations are not consistently practiced in their daily family life. Furthermore, the previously implemented “Young Family Ministry” did not become sustainably established due to the lack of a long-term pastoral strategy and structural suppor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organizes the pastoral-theological foundations of family ministry by examining the biblical role of the family and the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intergenerational faith transmission.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s a pastoral model for family ministry for the 30–40 generation that focuses on four key elements: the restoration of parental faith through parent education, the restoration of family worship, family-centered faith formation programs, and small group-based family communities.

Finally, this study presents practical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applying the proposed family ministry model in the context of local church ministry, including a phased implementation strategy, a three-year ministry roadmap, and an annual family ministry timeline. These pastoral strategies present an integrated model of family ministry that seeks to restore the family as a faith community and to encourage cooperation between the church and the family in transmitting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intergenerational faith transmission through family-centered faith formation and suggests the need for the Korean church to reestablish family ministry as an important pastoral strategy.

국문초록

3040 세대의 가정사역 방향성 연구: 응암교회 사례를 중심

송민근

응암교회, 서울, 대한민국

본 연구는 한국교회 3040 세대를 대상으로 가정 중심 신앙 형성을 위한 가정 사역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성경적·신학적 기초 위에서 목회적 모델을 제시하며, 이를 실제 교회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사회의 세대 이론과 가족 구조 변화, 그리고 3040 세대의 교회 인식 변화와 이른바 가나안 성도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3040 세대가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 속에서 신앙을 이해하고 있으며,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실제 가정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례 연구로서 응암교회의 3040 세대 사역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 현실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많은 부모들이 자녀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예배와 신앙대화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에 진행되었던 영패밀리 사역은 장기적인 목회 전략과 구조가 부족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성경에 나타난 가정의 신앙적 역할과 신앙의 세대 전수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토대로 가정사역의 목회신학적 기초를 정리하였다. 나아가 3040 세대를 위한 가정사역 모델로서 부모교육을 통한 신앙 회복, 가정예배 회복 프로그램, 가족 중심 신앙 형성 프로그램, 그리고 소그룹 기반 가정 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한 목회 모델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시된 가정사역 모델을 실제 교회 목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단계별 실행 전략과 3개년 실행 로드맵, 그리고 연간 가정사역 실행 타임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회 전략은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고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여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이루도록 돕는 통합적 가정사역 모델로 제시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 중심 신앙 형성으로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한국교회가 가정사역을 중요한 목회 전략으로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목회적 의의를 가진다.

목차

감사의 글	ix
표 목차	ix
그림 목차	ix
I. 서론.....	1
A. 연구 배경과 문제 제기	1
B.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	2
C.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4
D. 연구의 한계와 의의	5
II. 한국교회와 3040세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	6
A. 세대 이론과 한국 사회의 3040세대 이해	6
B.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 변화와 신앙 환경	12
C. 3040세대의 교회 인식 변화와 가나안 성도 현상	16
D. 3040세대의 신앙 특징과 목회적 요구	19
III. 응암교회 3040세대 가정사역 사례 분석	28
A. 응암교회의 역사와 현재 상황	28
B. 응암교회 3040세대의 신앙 현실 분석	31

C.	설문조사 결과와 해석	33
D.	3040세대 가정을 위한 영패밀리 사역 사례와 실패 요인	41
IV.	3040세대 가정사역을 위한 성경적·신학적 기초	48
A.	성경에 나타난 가정의 목적과 기능	48
B.	신앙의 대물림에 대한 구약적 이해	51
C.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정과 교회의 관계	55
D.	가정사역에 대한 목회신학적 정리	58
V.	3040세대를 위한 가정사역 방향성과 목회 모델 제안	62
A.	3040세대 가정사역의 기본 원리	62
1.	세대 맞춤형 목회 원리	64
2.	부모 신앙 리더십 강화 원리	64
3.	가정 영성 형성 원리	65
4.	교회와 가정의 협력 원리	65
5.	지속 가능한 신앙 형성 구조 원리	65
B.	부모교육을 통한 신앙 회복 모델	66
1.	신앙 인식 단계	68
2.	신앙 회복 단계	68
3.	신앙 적용 단계	69
4.	공동체 연계 단계	69
C.	가족 중심 신앙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72
D.	소그룹 기반 가정사역 구조 설계	75

E.	응암교회 적용을 위한 단계별 실행 로드맵	79
VI.	결론 및 제언	85
A.	연구 결과 요약	85
B.	한국교회 가정사역에 대한 목회적 함의	88
C.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89
D.	목회자로서의 성찰과 결론적 제언	90
	참고문헌	92

표 목차

(표 2-1) 에릭슨의 인간 발달 단계표

(표 3-2) 응암교회 예배출석 교인 연평균 분포<2022년 11월 기준>

(표 3-3) 응암교회 3040 세대에게 묻다(설문내용)

(표 5-4) 3040 부모 신앙회복 교육 프로그램 구성

(표 5-5) 가정예배 회복 프로그램

(표 5-6) 소그룹 기반 가정사역 구조

(표 5-7) 3040 세대 가정사역 3개년 실행 로드맵

그림 목차

- (그림 2-1) 신앙생활 시작 시기
- (그림 2-2) 신앙생활의 이유
- (그림 2-3) 신앙적 회의를 경험한 비율(%)
- (그림 2-4) 10년 후 신앙 유지에 대한 예상
- (그림 2-5) 교회의 사회봉사 향후 참여 의향
- (그림 2-6) 교회의 소그룹(구역, 속회, 셀, 순) 참여비율
- (그림 2-7) 연령별 교회의 소그룹(청년부, 남전도회, 여전도회등) 참여비율
- (그림 3-8) 2006년~2021년 연평균 출석통계(청장년)
- (그림 3-9) 2025년 응암교회 전체 출석현황
- (그림 3-10) 응암교회 3040 세대에게 묻다(설문 응답자 비율 도표1)
- (그림 3-11) 응암교회 3040 세대에게 묻다(설문 응답자 비율 도표2)
- (그림 3-12) 응암교회 3040 세대에게 묻다(설문 응답자 비율 도표3)
- (그림 3-13) 2016 제1회 응암교회 Healing 캠프 핸드북
- (그림 3-14) 2017 응암 영패밀리 젊은 가정 모임 기획안
- (그림 3-15) 응암교회 영패밀리 브로슈어
- (그림 3-16) 가정사역 연간 실행 타임라인

감사의 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지금까지 목양 일념으로 지내오면서 목회에 깊이를 더하고자 시작한 학업이 논문으로 모든 과정을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과 학업을 병행하는 막막한 발걸음 속에서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새 힘과 용기 주셔서 결실을 맺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떠한 주의 일에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주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시간마다 미래목회에 대한 통찰과 가르침으로 목회의 지경을 넓혀주신 김영래, 조병호,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든 상황을 허락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응암교회 강석제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함께여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드루 디민 과정 동기 목회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연약함을 감싸 주며, 뒤늦게 학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준 가장 큰 동역자이자 누구보다 수고한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시간보다는 늘 아빠를 배려하고 양보해 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두 딸에게도 감사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해주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일이 다 이름을 부를 수는 없지만, 교회 사역의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잊지 않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 5.

송민근

I. 서론

A. 연구 배경과 문제제기

한국교회의 위기는 신뢰·세대·정체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 사회적 신뢰 붕괴를 꼽을 수 있다. 일부 목회자의 도덕적, 재정적 스캔들과 교회 내 권위주의와 세습 문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켰다. 반사회적 이미지가 특정 정치 성향을 신앙과 동일시하는 모습이 신앙을 분열의 도구로 보이게 만든 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물론 앞서 거론한 문제들도 치명적이지만, 교회 내부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 위기 역시 우려스럽다. 필자가 속한 교단의 경우, 최근 4년간 교인 수는 2020년 239만 2,919명에서 2024년 219만 919명으로 감소하여 총 202,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약 8.44% 감소), 세례교인 수는 2020년 161만 5,710명에서 2024년 156만 3,898명으로 줄어들어 약 3.21%의 감소율을 보였다.¹ 물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지만, 교회학교의 지속적인 감소세로 인해 많은 교회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더불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지만, 신앙인으로 불리기 원하는 가나안 성도들도 늘어나고 있는 점 역시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교인 수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대가 다음

¹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계위원회, “통계자료 제109회 총회보고,” http://new.pck.or.kr/bbs/board.php?bo_table=SM02_25_06&wr_id=57&sca=행정자료#mw_basic [2025.12.30. 최종접속].

세대로 원활하게 계승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징후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핵심 세대로서 30대와 40대, 이른바 ‘3040 세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회 프로그램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교회의 중추적 구성원이자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세대로서, 다음 세대의 신앙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신앙 상태와 신앙 실천 여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지속성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3040 세대는 직장과 가정, 자녀 양육의 부담 속에서 신앙 실천이 약화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으며, 교회 내에서도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돌봄과 공동체 형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다음 세대의 신앙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신앙의 대를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허리 세대이자 신앙 전수의 핵심 주체인 3040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목회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3040 세대를 중심으로 한 목회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B.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절벽² 시대 가운데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쇠퇴하지 않고 부흥하기 위해서, 즉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목회자로서 관심을 갖고 대안을

² 국가 인구 통계 그래프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는 연령 구간. 인구 감소가 급격하여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용어이다. 경제전문가 해리 덴트의 저서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에서 유래했다. 그는 특히 세계 곳곳에서 베이비 붐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다음 세대의 소비 주역이 나타날 때까지 경제는 아찔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인구 절벽’이라 명명했다. 다음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uew/47XXXXXXXXj3> [2025.12.30. 최종접속].

찾고자 하는데 있지만, 기존 세대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목회의 현실적인 고충과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교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신앙 계승을 위한 목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쇠퇴와 신앙 계승의 약화라는 현실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 부모가정의 신앙 현실과 필요를 분석하고, 응암교회의 젊은 가정사역 사례를 통해 이들을 위한 목회적 대안과 적용 가능한 사역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3040 세대는 결혼과 자녀 양육, 직장 생활을 동시에 감당하는 생애주기적 특성으로 인해 신앙 실천이 약화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 더불어 교회 내에서는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소그룹과 양육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공동체 소속감과 정서적 유대가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자녀 세대인 다음 세대의 신앙 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목회적 과제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3040 세대는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체성의 전환을 경험하는 시기로, 이들이 신앙과 삶의 통합을 이루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회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예배 참석이나 봉사 참여를 넘어, 가정과 직장, 일상 속에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목회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3040 세대 부모가정의 사회적 배경과 신앙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3040 세대 부모가정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필요는 무엇인가?

셋째, 응암교회의 3040 세대 사역 사례를 분석할 때, 응암교회의 젊은 가정 사역 실패 사례는 어떤 원인과 한계를 보여주는가?

넷째, 3040 세대 부모가정의 신앙 형성과 신앙 계승을 돕기 위한 목회적 대안과 사역 모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3040 세대의 사회적 배경과 신앙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방지하며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세워지기 위한 목회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가족을 신앙 공동체로 회복하고, 부모 세대를 중심으로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전수될 수 있는 목회적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C.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3040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족 중심 신앙형성의 목회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연구, 사례연구, 그리고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통합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교회의 세대 변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 그리고 3040 세대의 사회적 배경과 신앙적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성경적 가족 이해와 신앙 전수에 관한 신학적 논의를 고찰함으로써 가족 중심 신앙형성의 목회적·신학적 기초를 정립하고자 한다.

둘째, 사례연구로서 응암교회의 3040 세대 사역을 분석한다. 특히 신혼부부 및 젊은 가정사역의 운영 과정과 한계를 검토하고, 해당 사역이 지속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원인을 목회적 및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3040 세대 사역의 실제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설문조사를 통해 응암교회에 출석하는 3040 세대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가정 내 신앙 실천 현황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3040 세대가 인식하는 신앙의 중요성과 실제 삶에서의 실천 사이의 간극을 분석하고, 목회적 요구와 필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3040 세대 부모 가정으로 한정하며, 이를 통해 가정 내 신앙 전수의 실제적 가능성을 탐색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응암교회를 중심으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최근 교회 통계 변화와 사역적 전환이 나타난 시기를 중심으로 설정한다.

자료의 범위는 교단 통계 자료, 선행 연구 문헌, 성경 및 신학 자료,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교회 사역 자료를 포함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교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목회적 대안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D. 연구의 한계와 의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우선, 지역적으로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응암교회로 국한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다른 지역이나 교회에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다. 또한 교회 전체 교인 수 1,900여명 중 3040 세대는 428명(2022년 기준)으로 약 20%를 차지하지만, 설문 참여 인원은 30여명에 불과하여 전체 세대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3040 세대라는 제한된 세대를 위한 사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오는 한계 가운데서도 가능성을 정리하여, 이를 목회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효용성을 검토하고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응암교회의 3040 세대 사역 ‘영패밀리’³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이론과 실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 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한국교회의 3040 세대에 적용 가능한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3040 세대를 대상으로 한 가정사역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가정 중심 신앙 형성을 위한 목회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3040 세대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 부모가정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 먼저 한국 사회의 3040 세대 부모가정을 이해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어서 교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3040 세대 부모가정의 신앙 현실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성경적·신학적 관점에서 가정사역의 기초를 정리하고, 3040 세대 부모가정을 위한 가정사역 목회 모델과 교회 적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³ 신혼부부와 젊은 부부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으며, 3040세대로 구성되었다.

II. 한국교회와 3040 세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

A. 세대 이론과 한국 사회의 3040 세대 이해

‘한국교회 추적조사 2024’⁴에 따르면 목회자가 향후 목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세대는 바로 3040 세대이다. 이들이 중요한 이유는 고령화 시대에 교회에서 허리 역할을 맡고 있으나, 직장생활과 가사와 육아에 지쳐 신앙 약화가 두드러지며 이러한 영적 침체는 곧 그들의 자녀인 다음 세대까지 그 과장이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3040 세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학자들의 세대 이론을 바탕으로 목회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에릭슨의 인간 발달 주기와 사회학적 세대 분석을 통해 3040세대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신앙 양육과 교회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간에게는 인생의 초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각 시기별 발달 과제가 있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다양한 가족생활 주기를 학자에 따라 6단계, 8단계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은 인생이 이 단계들을 거치면서 한 인간으로서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주기에는 거기에 걸맞는 발달 과제가 있게 마련이다. 그 과제를 잘 수행하면

⁴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228호): 한국교회 추적조사 2024,” 넘버즈,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13&page=4 [2025.08.25 최종접속].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다.⁵

이러한 인간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는 것은 본 논문에서 3040 세대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왜냐하면 목회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3040세대가 어떤 발달 단계에 있으며, 그에 따른 삶의 과제와 신앙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때, 보다 효과적인 3040세대 목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대표적인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슨(Erikson)의 인간 발달 주기를 중심으로 각 발달 단계의 특징을 살펴본 후, 한국 사회의 3040세대가 지닌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왜 신앙이 약화되고 교회 공동체에서 점차 소외되어 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에릭슨에 의하면,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 8가지의 발달 단계를 경험하며, ‘온전한 자아’ 를 이루어 간다.⁶ 단계를 거치면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발달 과정 8단계는 ①유아기(0-1세) ②초기 아동기(2-3세, 걸음마기) ③학령 전기(3-6세) ④학령기(6-12세, 초등학생) ⑤청소년기(12-18세, 중고등학생시기) ⑥초기 성인기, 청년기(18-35세) ⑦중, 장년기(40-64세) ⑧노년기(65세이후)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에릭슨은 인간은 누구나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받으며, 인생의 여러 단계마다 겪는 일을 통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 발달이론은 1950년에 발간된 『아동기와 사회(Childhood and Society)』 라는 책에서 ‘인간의 여덟 시기(eight Ages of Man)’ 라는 제목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프로이드(Freud)와 달리 인간의 발달을 청년기에 끝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⁵ 송길원 외, 『가정사역』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0), 123.

⁶ 박아청, 『에릭슨의 인간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2010), 239.

걸쳐 변화해 가는 것으로 보았다.⁷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연구된 ‘인간 발달 이론’은 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어린 자녀가 함께 발달해 간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자녀양육이 단순한 자녀만의 성숙뿐 아니라, 부모 자신의 인격적 성숙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에릭슨은 발달을 단순한 생물학적 성숙의 결과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적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자아 발달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에릭슨의 인간 발달 단계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발달단계	심리사회적 위기	영향에 미치는 주요관계	미덕 긍정적 원동력	악덕 부정적 원동력
1	유아기 (0-1세)	기본적 신뢰감vs 불신감	어머니	희망	두려움
2	걸음마기 (2-3세)	자율성vs 의심, 수치심	부모님	의지적	충동적, 분노
3	학령전기 (3-6세)	주도성vs 죄의식	가족	목적	억제, 탐욕
4	학령기 (6-12세)	근면성vs 열등감	이웃, 학교	능력, 적격성	비활발, 질투
5	청소년기 (12-18세)	자아정체성vs 역할혼란	또래	충성심	거부, 거만
6	청년기	친밀감vs	동성, 이성친구	사랑	배타적,

⁷ 장애영,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서울: 두란노, 2018), 132.

	(18-35세)	고립감			성적인 문제
7	청년기 (40-65세)	생산성vs 정체	배우자	배려, 돌봄 자녀양육공유	자기탐닉, 무관심
8	노년기 (65세 이후)	자아통합vs 절망	인류, 우리들	지혜	우울증, 오만함

<표 2-1> 에릭슨의 인간 발달 단계표

위의 2-1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의 주요 대상인 3040 세대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폭넓은 연령대의 자녀를 둘 수 있는 부모 세대이다. 그러니까 청년기에 있는 30대 부모는 유아기를 포함한 학령기, 학령전기의 자녀를 둘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또한 청년기에 해당하는 40대 부모는 결혼의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청년기 이하의 모든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3040 세대 목회는 부모 세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녀 양육 및 가정사역의 관점에서 함께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참석한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 2023년 <3040 세대 목회전략 세미나>의 주제 강의를 한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3040 세대는 인생에서 전환기로 개인적인 정체성 면에서나 신앙 면에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는 나이이고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연령대이다. 흔히 ‘신세대도 선세대도 아닌 낀 세대’ 라고 불린다. 그만큼 정체성이 약하다는 의미이다. 청년기의 열정과 의욕을 뒤로하고 이제는 안정된 위치로 나가야 할 시기이지만, 마땅히 자기 영역을 확보하지는 못한 어정쩡한 시기이다. 청년에서 장년층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는 나이이다. 그러면서도 결혼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면서 부모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 분가, 자녀 출산 등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세대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가장 왕성하고 의욕적으로 일해야 하는데도, 불투명한 미래와 흔들리는 자기 정체성 등으로 고민과 갈등을 겪게 된다. 초기 성인기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나이대로는 대개 20대부터 짧게는 30대까지, 그리고 폭넓게는 40대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개념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성인이라고 판단되는 객관적 지표를 획득하지 못한 시기로 보기도 한다.⁸

앞서 세대 이론인 에릭슨의 인간 발달 단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청년기와 중년기에 걸쳐진 3040 세대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한 지 오래 되지 않아 적응이 필요한 시기에 사회 자체도 급변하기 때문에 더욱 큰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이 우려된다. 더욱이 기독교인의 경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성경적인 관점,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 등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기도 힘들 뿐더러 기성세대의 신앙적 가치관과 부딪히는 혼란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크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30대는 695.5만 명이고 40대는 811.6만 명으로 1,507.1만 명이다. 40대 인구는 우리나라 연령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 끝자락에 해당하는 50대 857.6만 명보다 조금 적고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연령대이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3.4%, 15.7%로 합해서 29.1%이다.⁹ 전체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3040 세대의

⁸ 정재영, “3040세대 이해와 현황,” 『3040세대 목회전략 세미나 자료집』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2023), 5.

⁹ Ibid., 6.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결혼해서 아이를 얼마나 낳는지에 따라서 출산율도 크게 영향을 받고 결과적으로 국력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3040 세대는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따른 과실을 어렸을 때부터 향유했으며, 궁핍했던 경험을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난을 겪어본 기성세대 부모와 문화적 괴리가 상당히 심하다. 성장 과정에서 교육정책의 혼선이 빚어지고, 사춘기 또는 대학생 시기에 IMF 외환위기라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자본주의가 체화되어 이른바 '스펙 쌓기'에 골몰하는 양태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가치관 측면에서도 옳고 그름이 분명하던 시대에서 가치가 다원화된으로써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매우 유동적이게 된 시대로의 전환을 경험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 세대이다.¹⁰ 이와 같은 세대적 특징은 단순히 사회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과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 부모가정의 경우 이러한 세대적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과 신앙 실천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B.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 변화와 신앙 환경

가족은 인간 사회의 원초적이며 기본적인 집단임에도, 정의하기가 쉬운 개념은 아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유도 있지만, 나라마다, 문화마다, 사회마다, 시대마다 가족의 개념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은 하나의 사회 제도 이상으로 오랫동안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¹⁰ Ibid.

집단으로 여겨져 왔다.¹¹ 최근까지 한국 사회는 이성적 결혼 제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4인 가구를 이상적 가족의 형태로 이해하는 가족 이데올로기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새로운 가치관들이 형성되고 해체되는 현대사회의 영향으로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등 혈연으로 이뤄진 전통적인 가족 개념은 흔들리고 있으며, 전통적 가족 정의와는 다른 다양한 가족 구조가 낫설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중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1인 가구 등은 한국 사회에서 익숙한 가족 구조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본 정자은행을 통한 시험관 시술로 비혼 출산을 한 방송인의 사례를 통해 정자 제공으로 형성된 가족 또한 미디어에서조차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 구조의 등장은 더 이상 서구 사회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점차 현대 사회의 보편적 특징이 되면서, 가족의 의미는 한 가지 형태의 가족(family)이 아닌 다양한 가족 구조들이 동등하게 공존하는 복수 형태의 가족(families)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¹² 미디어로 대표되는 사회 문화적 영향도 가족 인식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드라마, 예능, 영화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자연스럽게 묘사되면서 정상적인 가족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는 가족의 개념이 해체되고 있다.

다양한 가족의 모습은 가족 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며, 더 이상 가족은 주어진 관계가 아니라 가족 구성권이라는 개념과 함께 선택된 관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인식은 세대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세대별 가족에 대한 기대, 책임, 역할에 대한 가치관 등이 크게 다르며, 이는 가족 내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¹³ 이러한

¹¹ 김은혜, “한국사회의 가족해체와 가족신학의 정립의 필요성,” 『장신논단』 39 (2010), 225.

¹² Ibid., 228.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 변화 속에서 가족의 개념은 점점 더 유동적이고 다원화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공동체 문화, 복지 및 종교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독교인 집단은 여전히 결혼, 출산, 혈연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가족 범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비기독교인 집단은 반려동물, 비혈연 동거인 등 비전통적 관계를 가족으로 수용하는 폭이 넓었다. 이러한 차이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 개념이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동시에, 부부와 자녀의 단위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족 질서라는 신앙적 전제와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가부장적 핵가족 모델이 결합된 기독교적 가치관이 가족 범위의 경계 설정에 여전히 전통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⁴ 향후 가족 범위에 대한 변화를 단순한 사회적 현상으로 넘어 기독교 공동체적 이해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수용해야 할지에 대한 교회 현장에서의 구체적 실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이혼 및 재혼, 1인 가구, 비출산 혼인 가구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종교적 지위별 분석에서 평신도와 비종교 집단이 성직자 및 평신도 리더 집단보다 더 높은 수용도를 나타냈다. 이는 가족 다양성 수용이 성별과 종교적 역할, 사회적 경험 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됨을 보여준다. 특히 종교 지도자 집단의 보수적 태도를 고려해 볼 때, 기독교 목회자들의 보수적 태도 또한 교회 내 정책과 설교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교인들의 인식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족 다양성을 고려한 사역이

¹³ 유지은, “한국사회의 가족 구조 변화 인식: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122 (2025), 250.

¹⁴ Ibid., 265.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4.8%에 불과했다. 이는 상당수의 교회가 여전히 전통적 가족 모델 중심의 사역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¹⁵

한국 사회 가족 구조의 변화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설교,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 등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을 필요하다. 목회자는 이혼, 재혼, 한부모, 미혼모, 미혼부 등 다양한 가정 형태의 교인들을 향해 이해와 동행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대별로 전통적 가족 가치와 현대의 가족 다양성에 개방적 태도의 차이를 보였기에, 각 세대에 맞는 사역 프로그램 또한 필요하겠다. 이 주제를 다루는 사례 토의나 간증 모임을 운영함으로써, 교인들이 이론적 이해를 실제적 공감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가족 단위 교회 출석이 많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같은 교단들은 가정예배, 주일학교, 부모의 신앙 전수를 강조하며 가족을 신앙교육의 핵심 장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 가족 구조의 변화인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는 부모 자녀 간 신앙 전수 구조를 약화시켰다. 맞벌이 가정 증가로 가정예배가 줄어들었고, 기독교 교육은 교회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 구조의 변화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전수 구조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3040 세대 부모가정은 자녀의 신앙 형성을 책임지는 세대라는 점에서 가정의 신앙적 역할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목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 내 신앙 전수가 약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목회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에, 이제 다음 장에서는 변화된 신앙 환경에서 3040 세대의 교회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¹⁵ Ibid., 267.

C. 3040 세대의 교회 인식 변화와 가나안 성도 현상

한국교회는 19세기 말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해 전파된 복음 이후, 급속한 사회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부흥을 이루었다. 그러나 급격한 한국 사회 변화와 종교 환경의 변동 속에서 한국교회는 다양한 도전들에 대응하며 그 뿌리를 지키고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 변화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앙 유형의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가나안 성도’이다. 이는 ‘안나가 (교회에)’를 거꾸로 읽은 표현으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유지하지만, 제도권 교회 출석은 중단하고 개인 경건생활을 다양한 방식으로 유지하는 형태의 성도를 뜻한다. 이들은 전통적인 교회에 속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영적 만족과 필요의 충족으로 신앙생활을 선호하는 성도들인 것이다. 이들은 교회 구조와 리더십 방식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3040 세대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3040 세대는 종교에 큰 관심이 없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종교인은 20대 다음으로 30대(70%)와 40대(68%)에서 가장 많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53%와 55%로 절반이 넘는다. 과거 신앙 경험은 30대에서 개신교라는 응답이 18%로 가장 많다. 30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무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월에 발표한 ‘기윤실’의 교회의 사회 신뢰도 조사에서는 30대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14.4%로 가장 낮게 나왔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는 12.8%로 더 낮았다. 3040 세대 기독교인은 어떠한가? 2015년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전체 개신교인 가운데 30대 비율은 18.6%, 40대는 19.5%로 다른 종교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가나안 성도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2017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 가나안 성도 비율은 20대와 비슷한 25%이고, 40대 가나안 성도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34%로 나타났다. 2023년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는 30대에서 가나안 성도 비율이 33.3%로 가장 많았고, 40대도 이와 비슷한 33.1%였다. 전체 연령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고 3040 세대 개신교 신자 3명 가운데 1명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¹⁶

교회 안의 3040 세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청년세대를 마감하고 기성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이지만 삶의 불안정성과 기성세대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서 장년부에 쉽게 편입되지 못한다. 삶의 변화와 분주함으로 인해 신앙도 약화되기 쉽다. 특히 코로나 사태의 여파속에서 이들의 신앙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면 예배 출석 비율이 가장 적은 연령대가 이 세대이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플로팅 크리스찬(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부유하는 성도)도 이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¹⁷

교회 안의 3040 세대는 현재 예배 출석률이 가장 낮아서 ‘잠재적 가나안 성도’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사회의 3040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3040 세대 역시 인생의 전환기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20대 청년부에서 활동하던 때의 뜨겁고 의욕 넘치는 신앙에서 다소 진지하고 보다 원숙한 신앙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는다. 30대는 무비관적으로 쉽게 믿고 뜨거워질 수 있는 젊은이들이 더 이상 아니다.¹⁸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 한국교회탐구센터, 목회데이터연구소가 12월 9일 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교회의 약한 고리, 3040 세대의 신앙생활 탐구’ 세미나에 따르면, 3040 세대가 교회의 약한 고리가 되는

¹⁶ 정재영, “3040 세대 이해와 현황,” 7.

¹⁷ 지용근 외,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서울: 규장, 2022), 31-40.

¹⁸ 정재영, “3040 세대 이해와 현황,” 8.

가장 기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낮은 신앙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신앙적 단계를 스스로 체크하게 했을 때 1단계(4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 비율이 5060 세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5060 세대의 절반(52%)은 신앙의 핵심 가치인 ‘구원’ 이라고 응답했는데 3040 세대는 28% 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에 ‘마음의 평안을 위해’ 라는 이유는 3040 세대의 경우 31%였고 5060 세대의 경우는 26%였다. 즉 3040 세대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구원’ 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위해’ 였다. 또한 3040 세대의 80%는 과거에 신앙적 회의를 했거나 현재도 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3040 세대가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에 처해 있는 세대라는 점이 ‘약한 고리’ 가 되는 또 다른 원인이었다. 3040 세대는 직장에 적응하고 실무자로, 중간 책임자로 열심히 일할 시기이며 가장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는 시기이다. 또한 자녀는 아직 어려서 부모의 손길이 많이 가야 하고 자녀의 학업 때문에 자녀에게 올인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 ‘직장/사회 생활’ 과 ‘가사 노동 및 육아’ 로 인한 스트레스 및 탈진이 각각 71%와 53%나 되었다. 3040 세대가 자기 생활에 ‘만족’ 하는 비율이 39%, 불만족 비율이 34%였는데 만족 47%, 불만족 23%를 보인 5060 세대와 비교하면 만족도는 낮고 불만족도는 높았다. 3040 세대의 생활이 그만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는 것을 뜻한다. 3040 세대 일상은 신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노동/육아 스트레스가 신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42%였으며, 직장/사회 생활 스트레스는 37%였다.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은 그것이 신앙 자체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결국 탈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설사 신앙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기독교인, 즉 일명 ‘가나안 성도’ 가 될 가능성이 높다.¹⁹

3040 세대의 교회 인식 변화는 전통적 제도 교회에 대한 불만과 영적 불만족에서 비롯된다. 가나안 성도 현상은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강화하며, 특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약화시켰다. 이와 더불어 COVID 19 팬데믹 상황을 통해 이들의 신앙 형태가 강화되었고, 교회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이 완전히 신앙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가나안 성도라는 형태를 넘어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영적 방식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더 깊은 목회적 고민이 절실히 요구된다.

3040 세대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참여 방식의 변화는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교회는 3040 세대 부모가정의 신앙 형성과 가정 신앙교육에 대한 목회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D. 3040 세대의 신앙 특징과 목회적 요구

3040 세대는 ‘베이비붐’ (Baby-boom)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세대’ (Echo Generation)²⁰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N포세대’로 불리며, ‘인생절벽’에 직면한 암울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²¹ 그런데 이들은 20년 전 X세대로 불렸던

¹⁹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173호)-3040세대 개신교인 신앙의식 조사,” 넘버즈,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00&page=5 [최종접속2025.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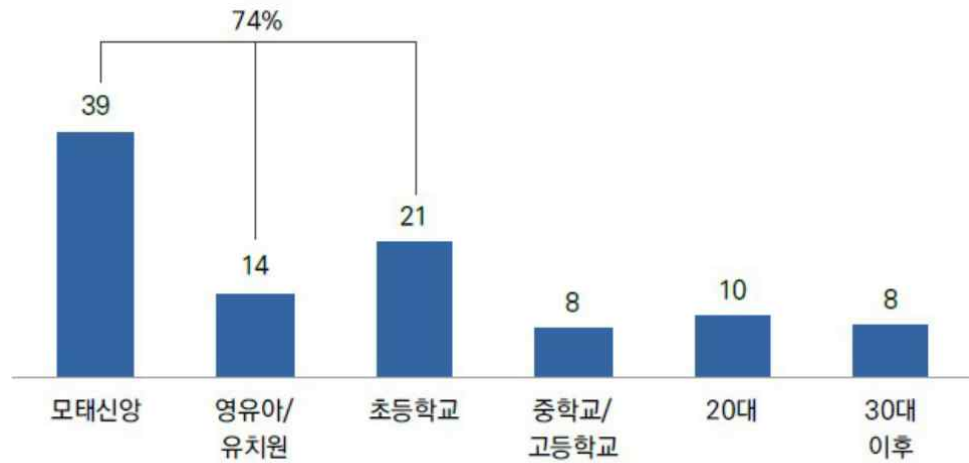
²⁰ 2012년 8월 2일 통계청이 배포한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에 대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베이비 부머’는 1963년생부터 1955년까지 9세 인구집단을, 베이비부머의 자녀인 ‘에코세대’ (Echo Generation)는 1999년생부터 1982년까지 14세 인구집단으로 정의하였다. 또 에코세대 중 경제난 분석의 관점에서 거대 인구 집단을 이루는 ‘에코부머세대’는 1985년생부터 1979년까지 7세 인구집단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²¹ 장홍길, 『울림세대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서울: 한지터출판사, 2016), 6.

세대이다. 1990년대 초반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문화 세대였으며, 다른 이의 눈치를 안 보고 살았던 세대였다. 이들이 현재 3040 세대의 중년기로 접어들었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둔 부모가 되었다. 이 절에서는 3040 세대의 신앙 특징을 분석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목회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040 세대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시기는 ‘모태신앙’ 이 39.0%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영유아/유치원’ 시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비율과 초등학교(21%) 때 신앙생활을 시작한 비율을 합하면 3040 세대 4명 가운데 3명 가까이(74%)가 부모 손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2-1 참고) 신앙생활 시작 계기를 ‘부모의 영향/전도/모태 신앙’ 이라는 응답자 비율은 60.1%로 10명 가운데 6명이었다. 5060 세대에서는 ‘부모의 영향/전도/모태신앙’ 이 35.0%인 것 보다 훨씬 높아졌다. 그리고 2030 세대에서 부모와 가족을 합한 ‘가족(부모)의 영향/전도’ 가 77.4%인 것과 비교하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부모’ 요인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40대 이하에서 ‘부모’ 요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서 이 연령대에서 기독교가 가족종교화되고 있고, 전도에 의한 입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²²

²²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173호)-3040 세대 개신교인 신앙의식 조사” 넘버즈,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00&page=5 [최종접속2025.12.30].



<그림 2-1> 신앙생활 시작 시기

3040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23%)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34%)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반면에 5060 세대는 ‘구원을 위해’가 가장 큰 이유였던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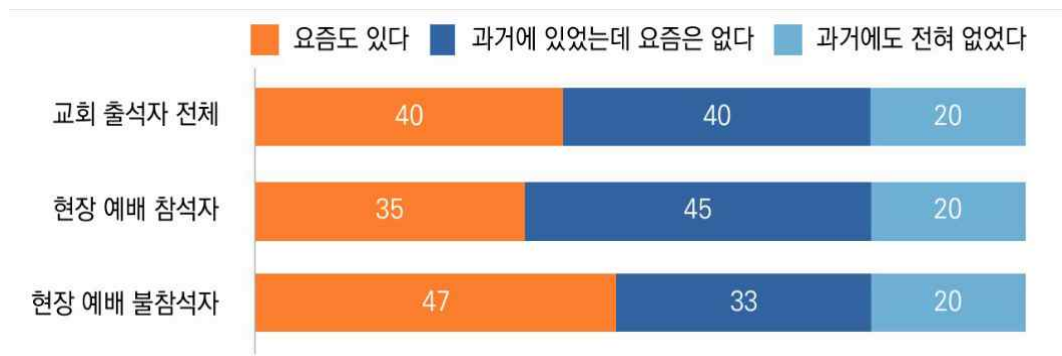
<그림2-2> 신앙생활의 이유

²³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173호)-3040 세대 개신교인 신앙의식 조사,” 넘버즈,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00&page=5 [최종접속2025.12.30].

5060 세대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이유로 ‘구원을 위해’ (52%)를 꼽은 반면, 3040세대는 신앙의 핵심 가치인 구원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3040 세대 10명 중 4명은 신앙적 회의 느끼고 있다. 교회 출석 3040 세대를 대상으로 신앙에 회의를 느낀 적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요즘도 있다’ 는 응답이

40%, ‘과거에 있었는데 요즘은 없다’ 가 40%, ‘과거에도 전혀 없었다’ 20%로 10명 중 4명 정도가 신앙적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현장 예배를 기피하는 3040 세대의 경우 절반 가까이(47%)가 신앙적 회의를 느끼고 있음이 주목된다. 신앙적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 문제(하나님의 존재와 역사, 성경)보다는 기독교인들의 윤리적 문제에 실망(37%)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적 회의가 없어진 계기로는 ‘저절로 회의가 사라졌다’ 가 30%로 가장 많이 응답됐다. ‘저절로 회의가 사라졌다’ 는 응답은 신앙적 회의를 불러온 문제가 해결되었다기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의식이 둔감해졌거나 문제를 외면하는 경우로 해석될 수도 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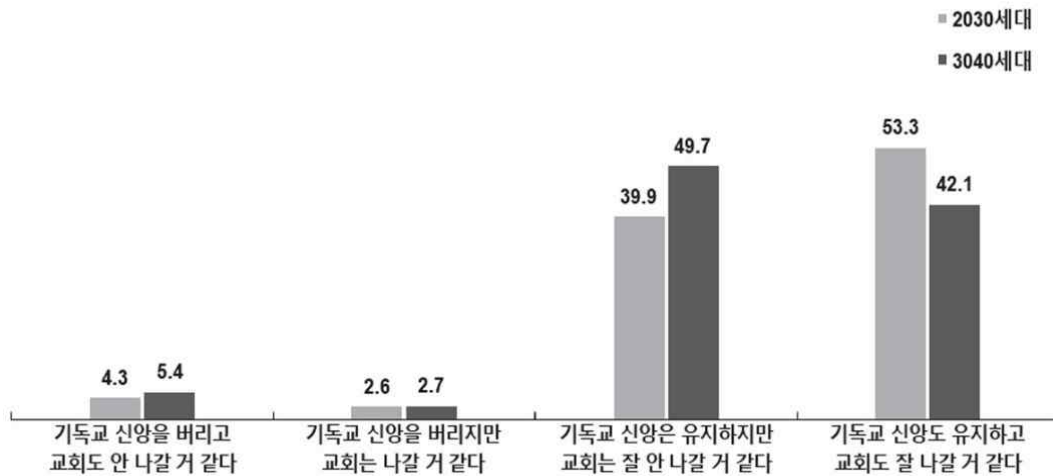


<그림 2-3> 신앙적 회의를 경험한 비율(%)

²⁴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173호)-3040 세대 개신교인 신앙의식 조사,” 넘버즈,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00&page=5 [최종접속2025.12.30].

3040 세대의 대부분이 신앙적 회의를 겪었으며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신앙적 회의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들에 대한 신앙적 지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정재영 교수는 3040 세대 목회 전략 세미나에서 10년 후 자신의 신앙 전망에 대해, “기독교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것 같다” 는 응답이 42.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50%는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잘 나가지 않을 것 같다” 고 응답해, 향후 가나안 성도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매우 비관적으로 전망한 것인데, 이것은 2030세대에서는 53.3%가 “기독교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거 같다” 고 응답한 것보다 더 부정적인 결과이다. 정재영 교수는 이를 통해 3040세대가 신앙생활에서 일정한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그 신앙이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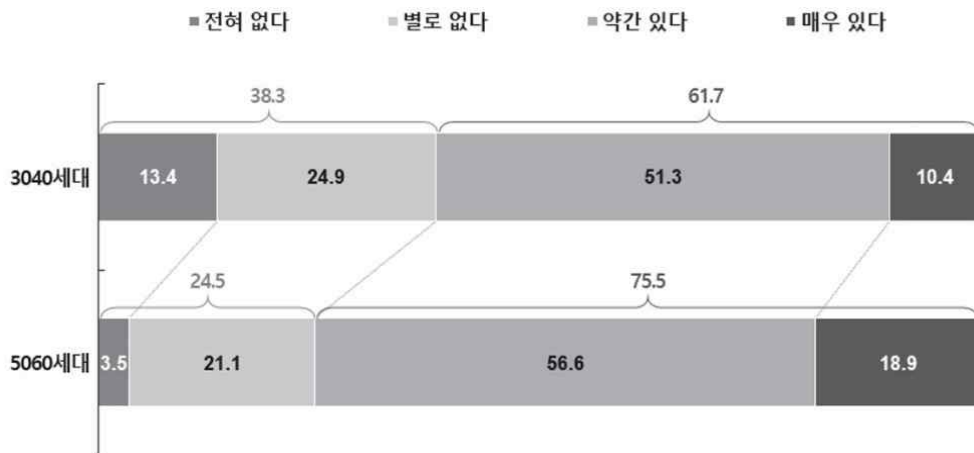
<그림2-4> 10년 후 신앙 유지에 대한 예상

이렇게 신앙 상태가 불안정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3040 세대에서 신앙 단계가

²⁵ 정재영, “3040세대 이해와 현황,” 10.

초신자인 비율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앙 단계를 1에서 4단계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을 때 초신자에 해당하는 1단계가 43%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4단계라는 응답은 8.6%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5060 세대뿐만 아니라 2030 세대와 비교해도 두드러진 결과이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신앙 상태가 약해진 것 같다는 응답은 신앙 1단계에서 훨씬 많이 나왔고, 4단계에서는 오히려 깊어진 것 같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²⁶ 신앙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3040 세대가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많다.



<그림 2-5> 교회의 사회봉사 향후 참여 의향

교회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3%가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교회 안의 봉사 활동이나 다른 활동보다 높았고, 5060 세대 참여율 41.7%보다 5.6%p 더 높은 비율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의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61.7%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5060 세대의 75.5%보다는 낮지만, 기존 소그룹 활동이나

²⁶ 정재영, “3040세대 이해와 현황,” 11.

청년부/전도회, 문화/취미 모임에 대한 참여 의향이 50%가 되지 않은 것에 비하면 훨씬 높은 비율이다.²⁷ 따라서 3040 세대들은 전통적인 교회 내부 활동들보다 사회봉사 활동에 관심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교회 공동체 참여의 약화로도 이어진다. 특히 3040세대는 교회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연령대별·성별 소그룹 모임에서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림 2-6> 교회의 소그룹(구역, 속회, 셀, 순) 참여비율

<그림 2-7> 연령별 교회의 소그룹(청년부, 남전도회, 여전도회 등) 참여비율

실제로 3040세대는 구역·속회·셀 등의 소그룹이나 남전도회·여전도회 등 교회 모임 참여율이 낮았으며, 특히 연령대별·성별 소그룹 모임에는 3명 중 1명(33%)만이 참여하였다.²⁸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 10:24)라는 말씀처럼, 서로의 삶을 나누고 고민을 함께하며 격려와 용기를 주는 공동체이다. 또한 사랑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게 하는 신앙의 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²⁷ 정재영, “3040세대 이해와 현황,” 12.

²⁸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173호)-3040 세대 개신교인 신앙의식 조사” 넘버즈,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00&page=5 [최종접속2025.12.30].

고립된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앙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목회적으로 소그룹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소그룹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교회에서는 주일예배는 참석하지 않아도 소그룹에는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3040 세대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신앙면에서나 생활면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구역 방식은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고 주로 교인 관리 차원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단순히 지역별, 연령별 편성 뿐만 아니라 비전과 관심 그리고 취미, 여가활동까지 고려하여 소그룹을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하기보다는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 소그룹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인생의 전환기에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고,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가정과 자녀 양육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3040 세대는 기존의 전도회 활동이나 구역 활동보다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았다. 또한 교회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 수행’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3040세대가 사회봉사와 사회적 책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이 신앙적 회의를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 기독교인들에 대한 실망에 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신뢰도 역시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3040세대는 전통적인 교회 활동보다 사회적 실천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정립하고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의 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3040 세대가 교회의 약한 고리가 되지 않도록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²⁹

이와 같은 3040 세대의 특징은 교회가 3040 세대를 단순히 ‘교회 출석자’ 나 ‘봉사자’ 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요 사역의 주체로 인정하며 목회적 방향과 콘텐츠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들의 언어와 감수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신앙교육과 공동체 환경을 제공할 때, 3040 세대는 다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의미를 회복하고 깊은 영적 여정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세대라는 점에서, 3040세대 부모가정의 신앙 형성과 영적 성숙은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토대가 된다.

²⁹ 정재영, “3040세대 이해와 현황,” 16.

Ⅲ. 응암교회 3040 세대 가정사역 사례 분석

A. 응암교회 역사와 현재 상황

응암교회가 위치한 서울 은평구 응암동은 마을 뒷산 자락에 있는 커다란 바위의 생김새가 마치 매가 앉아 있는 모습과 닮았다는 데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 이곳에는 예로부터 유명한 냉정약수(冷井藥水)가 있어서 일제 때는 가히 인근의 명물이었다. 해방 이후에는 여름철 장마 때 특히 한강 하류의 제방이 부실하여 침수가 되면 서울시가 수재민들을 단골로 집단 이주시켰던 곳이었다. 응암동의 동쪽으로는 녹번동의 일부와 백련산을 사이에 두고 서대문구와 경계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증산로를 사이에 두고 신사동, 증산동, 북쪽으로는 역촌동, 불광동 그리고 남쪽으로는 서대문구와 경계하고 있다. 행정동으로는 처음에 녹번동, 역촌동, 신사동까지 합해 녹신동사무소 관내로 삼았으나 그 후 인구 증가로 응암동은 분리되어 1동과 2동사무소로 개설되었다. 1975년 10월 1일 3동사무소를 하나 더 늘여서 3개 동으로 나누어졌고, 1988년 7월 1일 응암 2,3,4동으로 각각 나뉘어졌다.³⁰

응암교회 설립은 1931년 고양군 일대의 선교 사업을 추진하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밀의두(E. H. Miller, 密義斗)가 그의 동사자(同使者)³¹인 잔다리교회(현

³⁰ 은평문화원, “지명-응암동,” <https://epculture.or.kr/sub02/sub02.php> [2025.12.30. 접속].

³¹ 응암교회, 『응암교회 80년사』 (서울: 타라 티피에스, 2011) 72. 대개 선교사는 1명 내지 수명의 동사자와 함께 전도하는 일을 했다. 동사자는 함께 일하는 선교사(선교부)로부터 약간의 경제적 지원을

서교동교회) 김영한 장로를 파송하여 응암리, 역말, 구산리 일대를 전도하게 하였던 것이 시작이었다. 마침내 1931년 9월 27일 주일 응암동 172번지 포수말 이정환 씨택에서 10명이 첫 예배를 드렸다. 옛날부터 대대로 물려오는 뿌리 깊은 우상숭배 사상은 마을 주민들의 신앙이요, 생활 관습이었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전염병이 유행하였고 부스럼 등의 피부병은 계절에 상관없이 만연되어 있었다.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빈곤과 더불어 근대식 병원에 대한 생소함, 무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병은 항상 위세를 떨쳤다. 질병의 치료방법은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요법이었고, 최상의 방법이 굿이었다. 그런 상황의 교회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적과 은혜의 체험을 허락하셔서 교인들의 수는 많이 증가하였다. 첫 예배를 드린 지 약 2년 반 후인 1934년 5월, 처음으로 15명 목조 예배당³²을 건축하여 은평의 햇불로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일제 탄압과 6.25 수난기를 이겨낸 응암교회는 1961년 아름다운 돌예배당 봉헌을 비롯하여 착실한 교회 성장과 활발한 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³³ 1970년대의 응암교회는 도약기라고 할 수 있다. 1971년 11월 7일 황칠수 목사(현 응암교회 원로목사)를 청빙하였고, 30대 젊은 황칠수 목사의 의욕적인 목회활동은 필연적으로 응암교회를 크게 성장시켜 대성전시대를 열게 하였다. 1974년부터 교인이 더욱 증가하였고, 교회 대지를 확장했으며, 교회 조직을 확대하고 새 교육관(벤엘)을 지어 교회 교육의 향상을 도모하는 등 교회 성장의 받침을 마련하였다.³⁴

계속해서 성장해 오던 응암교회는 2000년대 원로목사의 은퇴와 더불어 쇠퇴의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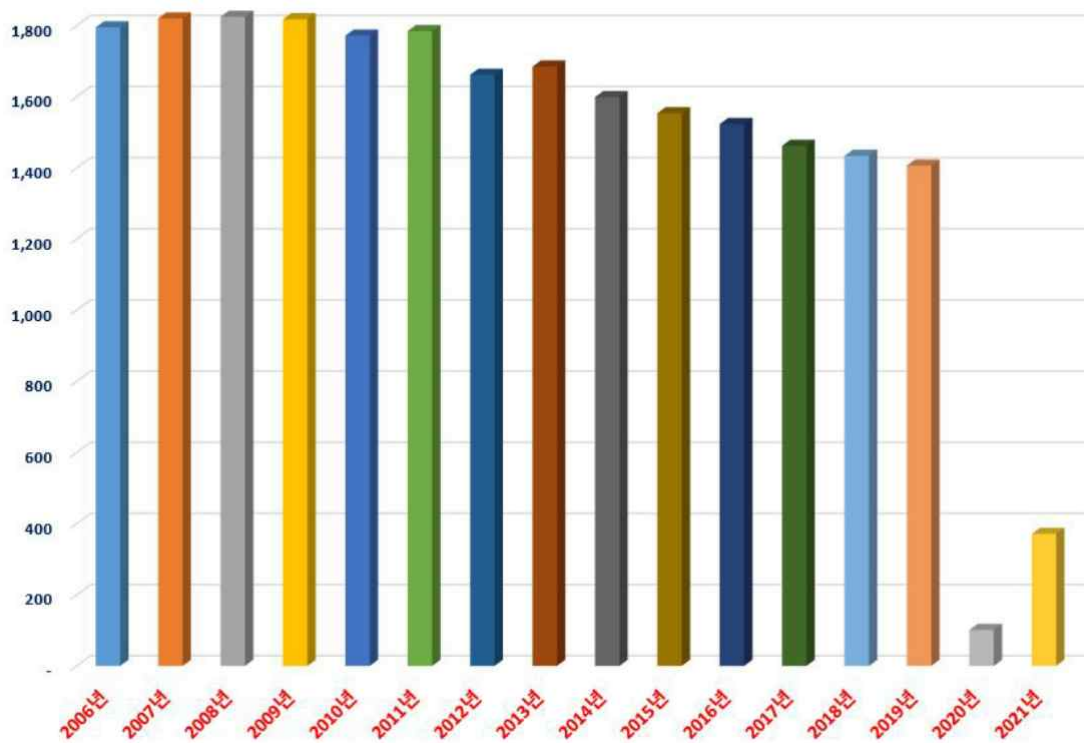
³² 응암교회, 『응암교회 80년사』 (서울: 타라 티피에스, 2011) 84쪽.

³³ Ibid., 134.

³⁴ Ibid., 205.

길로 들어선다. 10대 담임목사인 김기홍 목사는 영성 훈련과 평신도 성경공부, 새가족 양육프로그램 등으로 목양을 실천해 나갔으나 교회 성장의 한계와 원로목사와의 관계 문제로 응암교회는 침체기에 빠지게 된다. 결국 개인적인 일탈을 이유로 책임을 지고 2020년 10월 25일 사임하기에 이른다. 담임목사의 사임과 맞물려 코로나 시기를 겪은 교회는 내부로는 분열과 외부로는 팬데믹이라는 충격에 출석 교인 수가 급감하여 2021년 평균 출석 인원은 371명에 이르렀다.³⁵

2006년~2021년 연평균 출석통계(청장년)



(그림 3-8) 응암교회 2006년~2021년 연평균 출석통계(청장년)

현재는 2021년 9월 12일 강석제 목사가 부임한 이후, 교회 수습과 코로나 이후

³⁵ 2020년의 경우 팬데믹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1월의 자료만 존재하여 12개월로 나누어 평균으로 계산하여 기재함.

예배 회복에 집중한 결과 2025년 교세 통계상 장년 평균 출석이 900명대로 증가할 정도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9) 2025년 응암교회 전체 출석현황

이는 예배에 집중하여 영적 기쁨을 회복하고, 많은 교인이 이탈한 이후 혼란스러워진 교회 조직을 통폐합하여 빠르게 안정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과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목회적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B. 응암교회 3040 세대의 신앙 현실 분석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의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2』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고, 책에서 예측한 한국교회에 다가올 위기

상황이 지금 응암교회 상황과 매칭되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교회의 성장은 어느 정도 멈춘 후 후퇴하는 상황이며, 교회는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위험 부담을 해결해 나갈 능력을 잃게 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세계적인 경제의 상황, 주가, 금융 위기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교회들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대출했던 부채를 갚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채를 갚아야 할 세대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세대로 전락하게 되고, 그 다음 세대, 즉 이 논문의 대상인 젊은 3040 세대가 이와 같은 이유들로 떠나게 되어 고령화된 교회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책에서 한국사회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저성장에 빠지더라도 앞으로 5년 동안 한국교회가 미래 위기를 대비하고 근본적 갱신의 길을 선택한다면 미래는 반전될 수 있다고 한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어진 소명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30대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2010년 전까지 30-50 세대는 계속 증가해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30-40년 전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다.(중략) 2010년 이후 30-50대가 줄고 있는데 20-30년 후에도 계속 추수하려면 지금 씨를 뿌려야 한다. 특히 30대 이하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10-30년 후에 한국교회는 다시 거대한 추수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³⁶

이처럼 30대의 젊은 신앙인들을 위해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응암교회 예배 출석 교인을 연령별로 조사해 표로 만들어 보았다.

³⁶ 최윤식, 최현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208

연령대	남자(명)	백분율(%)	여자(명)	백분율(%)	비고
70대 이상	159	23	360	29	
60대	102	15	237	19	
50대	87	13	181	15	
40대	83	12	161	13	
30대	71	10	113	9	
20대	88	13	81	7	
10대	83	12	79	6	
10대 미만	22	3	12	1	
합계	695명	36%	1,224명	64%	1,919명

(표 3-2) 응암교회 예배출석 교인 연령군 분포<2022년 11월 기준>

2022년부터는 3040 세대의 감소가 응암교회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조사하게 되었다. 표 2-3에 의하면, 3040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큰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회는 3040세대의 감소가 교육부서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곧 교회의 미래와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교회는 3040세대 사역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개발하기 위해 3040세대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C. 설문조사 결과와 해석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응암교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오다가 교회의 내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3040 세대 성도들의 이탈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 현상을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자연적 감소 현상이나 코로나 시기의 영향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또한 새로운 담임목사와 함께 교회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여, 향후 목회 사역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3040세대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0대와 40대들로 이루어진 유치부, 유년부 부모들과 7여전도회(1980년생 이후)를 대상으로 짧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교회에 바라는 그들 세대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이로써 3040 세대 사역의 나아갈 방향을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암교회 3040 세대에게 묻다!!

30-40대는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또 가장 많은 어려움이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믿음도 가정도, 일도 중요하지만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3040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해답을 찾고자 7여전도회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삶을 세우는 작은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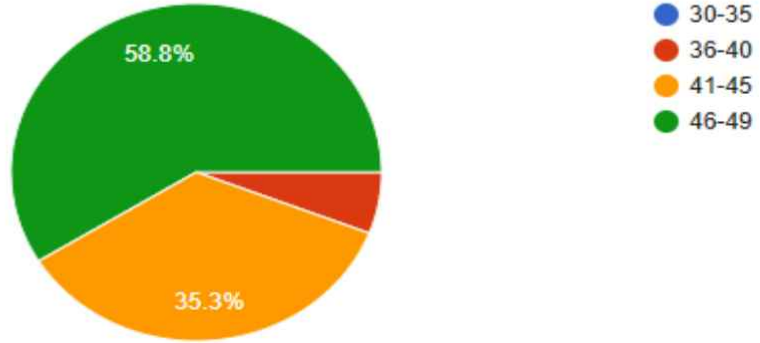
Q. 신앙생활을 하며 최근 가장 자주 드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A. 감사함 <input type="checkbox"/>	B. 무기력함 <input type="checkbox"/>	C. 의무감 <input type="checkbox"/>	D. 외로움 <input type="checkbox"/>
Q. 마음이 급하거나 상황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붙잡는 것은, 내가 실제로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핸드폰(검색, SNS정보) <input type="checkbox"/>			
B. 사람과의 교제 <input type="checkbox"/>			
C. 돈(물질) <input type="checkbox"/>			
D.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Q.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교회와 현실의 삶(집, 직장, 운전 상황)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날까요?			
A. 긍정적으로 비슷한 모습이다. <input type="checkbox"/>			
B. 때에 따라 다른 모습이다. <input type="checkbox"/>			
C. 전혀 다른 모습이다. <input type="checkbox"/>			
D. 부정적으로 비슷한 모습이다. <input type="checkbox"/>			
Q. 신앙생활이 내 삶에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그냥 습관인가요?			

<p>A. 작지만 변화가 있다. <input type="checkbox"/></p> <p>B. 긍정적인 큰 변화가 있다. <input type="checkbox"/></p> <p>C. 잘 모르겠다. 생각해 본 적 없다. <input type="checkbox"/></p>		
<p>Q. 설문지에 답이 없다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p> <p>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세요.</p>		
<p>Q. 우리 부부는 신앙적인 대화를 얼마나 자주 하나요?</p>		
<p>A. 자주 나눈다. <input type="checkbox"/> B. 가끔 나눈다. <input type="checkbox"/></p> <p>C. 월 1~2회 <input type="checkbox"/> D. 거의 나누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p>		
<p>다음 세대, 우리 자녀와 믿음에 대해서도 물어볼게요.</p> <p>Q.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 세대(자녀, 조카, 학생)와 대화 속에서 신앙적인 단어(하나님, 예수님, 성령, 말씀, 기도)를 사용하나요?</p>		
A. 항상 <input type="checkbox"/>	B. 가끔 <input type="checkbox"/>	C. 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p>Q. 나를 보며 다음 세대(자녀, 조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도전받고 있을까요?</p>		
<p>A.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p>		

<p>B. 약간 경험하는 것 같다. <input type="checkbox"/></p> <p>C. 자주 경험하는 것 같다. <input type="checkbox"/></p>
<p>Q. 나의 우선순위가 신앙임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있나요?</p>
<p>A.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B. 가끔 그렇다. <input type="checkbox"/></p> <p>C. 항상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D. 잘 모르겠다. <input type="checkbox"/></p>
<p>Q. 교회에 바라는 게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p> <p>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프로그램, 제안)도 이야기 해주세요.</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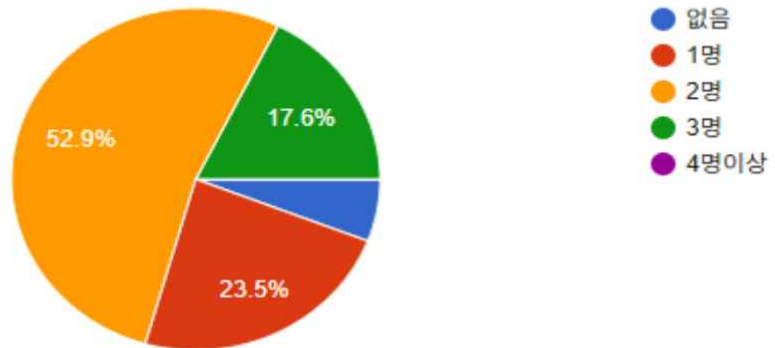
(표 3-3) 응암교회 3040 세대에게 묻다(설문내용)

나이 대
응답 17개



(그림 3-10) 응암교회 3040 세대에게 묻다(설문 응답자 비율 도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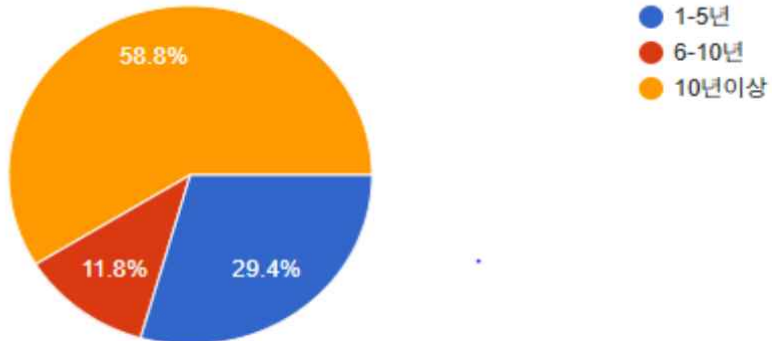
자녀
응답 17개



(그림 3-11) 응암교회 3040 세대에게 묻다(설문 응답자 비율 도표2)

우리교회 출석 연차

응답 17개



(그림 3-12) 응암교회 3040 세대에게 묻다(설문 응답자 비율 도표3)

설문 응답자의 연령, 자녀 유무, 교회 출석 연수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면(참조 그림 3-10, 3-10, 3-12), 응암교회 3040 세대는 자녀를 둔 가정이며, 교회 출석 연수가 10년 이상으로 특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표 3-3)를 통해서 세 가지 큰 틀에서 3040 세대 사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는, 그들이 원하는 필요이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들은 환경의 어려움과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고 느끼기도 하고, 홀로 서 있는 듯한 외로움과 무기력을 느끼기도 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마음이 급하거나 상황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의 응답을 보면, A. 핸드폰(검색, SNS 정보) 29.4%, B. 사람과의 교제 11.8%, C. 돈(물질) 11.8%, D. 자신의 경험. 곧 ‘내가 맞다’ 고 여기는 대로 행하는 것 47%로 나왔다. 이 대답으로 미루어 보아 내가 경험한 것이나 빨리 해답을 얻을 수 있어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성향임을 알 수 있다. 그와 더불어 교회와 현실의 삶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A. 긍정적으로 비슷한 모습이다 41.2%,

B. 때에 따라 다른 모습이다 41.2%, C. 전혀 다른 모습이다 11.8%로 나타났다. 교회와 현실의 삶이 비교적 일치한다고 느끼는 이들도 많지만, 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혹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며 신앙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세대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현재 신앙상태에 대한 질문이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가장 많은 대답은 A. 작지만 변화가 있다 52.9%, B. 긍정적인 큰 변화가 있다 35.3%로 나타남에 따라 대부분 작든 크든 신앙생활이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부의 신앙적인 대화에 대한 질문은 A. 자주 나눈다 17.6%, B. 가끔 나눈다 11.8%, C. 월 1~2회 29.4%, D. 거의 나누지 않는다 41.2%로 나타나 부부간의 신앙적인 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신앙의 열정이 서로 다르고, 함께 대화하는 것이 어색하며, 또 신앙 이야기를 하다가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는 응답도 있어 3040세대를 위한 부부 클리닉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는, 3040 세대 사역과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자녀 양육,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질문이었다. “나를 보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도전받고 있을까” 라는 질문에 A. 약간 52.9%, B. 자주 11.8%, C. 전혀 그렇지 않다 29.4%로 나타나 신앙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질문한 교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불편한 게 있어도 말 못 하는 분위기, 새 아이디어를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몇몇 사람만 계속 일하는 구조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또한 다수 나타났는데, 이는 전형적인 3040 세대의 교회 이탈 현상이 일어날

때 보이는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역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요청으로는 같은 나이(또래)와 신앙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남자 성도들이 교회에 더 적응할 수 있는 교제와 기도 모임,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캠프, 또래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함께 기도하고 소통하는 시간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짧은 설문이었지만, 3040 세대의 필요와 관심사, 그리고 사역이 나아갈 목표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결국 3040 세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는 개인 신앙 성숙이지만, 그 또한 자녀 교육으로 귀결된다. 이들의 절실한 필요와 요구는, 신앙 안에서 부모의 자녀 교육은 강조되지만 정작 이를 위한 교회의 안내나 교육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데 있다. 따라서 교회는 3040 세대의 신앙 육성과 가정 신앙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D. 3040 세대 가정을 위한 영패밀리 사역 사례와 실패 요인

사실 응암교회는 3040 세대 사역을 시도했었다. 2016년 당시 가장 젊은 여전도회인 11·12여전도회의 주관으로 젊은 부부를 위한 가족 힐링 캠프(2016년 10월 3일 월요일)를 진행하는 것이 그 시작이었다. 남녀선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3040 세대 부부들을 교회로 이끌고, 기존 남녀선교회와 연결하는데 목표를 두고 일회성으로 시작하였다. 총 18가정 58명(어른 30, 자녀 28)이 참여하여 강화도에서 당일로 진행되었다.(그림 3-13 참조)

행사 일정표

시 간	내 용
08:00	교회로 집합 (교회차량 이용시)
8:30~10:00	이동 및 도착
10:00~10:30	온가족이 함께 하는 잔양 울동
10:30~11:00	도착예배
11:00~12:00	★ 가족 소개 및 문패 만들기
12:00~13:00	점심식사 및 자유시간
13:00~15:00	부부 특강 / 영화 관람
15:00~15:30	실내 레크레이션
15:30~16:30	여의 가족 운동회
17:00~18:30	저녁식사 (바베큐 파티)
18:30~19:30	가족 기도회 및 폐회 기도
19:30~21:30	행사 폐회 및 귀가

2016 제1회 응암교회 Healing 캠프



- ▣ 일 시 : 2016년 10월 3일(월)
- ▣ 장 소 : 강화도 늘빛 수양관
- ▣ 주 최 : 응암교회 주내선교부
- ▣ 주 관 : 응암교회 11,12여전도회

(그림 3-13) 2016 제1회 응암교회 Healing 캠프 핸드북

이러한 친교를 위한 자치회 행사가 계기가 되어 2017년에 새로이 제시된 목회 비전 아래 “응암 영패밀리” 라는 사역명으로 전담 교역자 1명으로 3040 세대를 위한 사역이 시작되었다.(그림 3-14 참조)

2017 Eungam Young Family 젊은 가정 모임 기획안

- 주 제 : 아름다운 연합
- 주제 말씀 :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 133:1)
- 일 시 : 2017. 3. 12 (주일)부터 매월 2,4주 주일 오후 1시 - 2시 30분 (학기제로 운영)
- 장 소 : 임마누엘관 2층 및 4층 (2층 : 키즈케어, 4층 : 부모모임)
- 회 비 : 1인당 10,000원
- 참가 대상 : 45세이하 젊은부부 가정 (2017년 기준 부모모두 1973년생 이하인 가정)
- 세부 프로그램 : 소그룹 성경공부 및 가정세우기 프로그램
- 목 표 : 현재 응암교회에 나오는 3,40대 젊은 부부들간에 성경공부와 부부 관계 회복을 통해 은혜가 넘치는 소그룹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준비 및 1학기 전체 일정				
날 짜	내 용	확인 사항	담당자	기타 사항
1/8 (주일)	소그룹 리더 및 행정 준비팀 준비모임		전기현 목사	2월 5일 브로셔 배부 (7남선교회, 11,12여전도회) 2월 19일 주일 1-4부예배 홍보영상
1/22 (주일)				
2/12 (주일)				
2/26 (주일)				
2/25 (금)	성경적 부부관계 특강	강사섭외	이혜전 목사	국내선교부 주관
2/26 (토)	성경적 자녀교육 특강	장소, 간식	이혜전 목사	국내선교부 임원 행사 준비
3/12 (주일)	온 가족을 위한 인형극	장소, 간식	이혜전 목사	☎0-8181-8988
	오리엔테이션 및 조 나누기		이혜전 목사	남,여 개별 그룹, 부부 그룹
3/26 (주일)	소통하는 부부 1과		전기현 목사	
4/9 (주일)	중요로운 삶 1과 (거듭남)		각 소그룹 리더	온 가족 빛꽃 나들이 (종마목장)
	온가족 빛꽃 나들이			
4/23 (주일)	소통하는 부부 2과		각 소그룹 리더	
5/14 (주일)	중요로운 삶 2과 (회개)		각 소그룹 리더 진행팀(전도부)	
5/28 (주일)	소통하는 부부 3과		각 소그룹 리더	
6/11 (주일)	중요로운 삶 3과 (믿음)		각 소그룹 리더	
6/25 (주일)	소통하는 부부 4과 종강 예배		각 소그룹 리더 진행팀	

■ 권의 사항

키즈케어 여전도회 협조요청 (5-8여전도회), 행사 진행 시, 전도부 임원준비 (3-6월), (9-12월) 넷째주일 4부예배 설교 대체 필요.

(그림 3-14) 2017 응암 영패밀리 젊은 가정 모임 기획안

주 사역 방향은 부부관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교회 전도부 아래 조직으로 편성되어 스텝이 구성되었다. 스텝은 5060 세대들이었으며 10명이었다. 스텝은 3040 세대는 받지 않았으며, 3040 세대는 교회학교 시절이나 청년 시절처럼 봉사가 아닌 오직 교육과 활동에 집중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영패밀리 신청은 브로슈어(그림 3-15)를 보다시피 부부로만 받았으며, 34명 17가정의 지원자들로 모임을 시작하였다.

영패밀리 공동체 소개

2017년 2월 24일 / 25일 / 3월 12일
 시간 / 장소 - 2.24일(금) 오후 8시 / 본당
 2.25일(토) 오전 10시 / 임마누엘관 지하 영광홀
 3.12일 오후 1시 / 임마누엘관 3층
 대상 - 용암교회 3040 젊은가정들
 키즈케어 - 2.25(금) 오후 7시 30분부터 (임마누엘관 3층)

영패밀리 공동체 목표

목표 1
 성숙한 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기 위한

목표 2
 육아와 삶으로 지친 젊은 부부들이 삶을 나누고 교감하며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공동체 형성

목표 3
 배우자와 함께 나오는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고,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삶으로 전도하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영패밀리 공동체 정기모임

- 매월 둘째주, 넷째주 전체 모임
 주일예배 후 PM 1:00 ~ PM 2:30
 임마누엘관 4층 (부부모임) / 2층 (키즈케어)
- 다양한 주제와 프로그램 구성
 부부 세미나, 자녀교육 세미나, 야외예배 등
- 키즈케어 시스템
 부부가 모임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키즈케어 교사와 함께 단체 놀이에 참여

영패밀리 공동체 2017-1학기 진행 일정

1학기 : 3-6월 2학기 : 9-12월

- 3월 12일 (주일) 오리엔테이션
- 3월 26일 (주일) 건강한 부부관계
- 4월 9일 (주일) 성경공부(거듭남)
- 4월 23일 (주일) 건강한 부부관계
- 5월 14일 (주일) 성경공부(회개)
- 5월 28일 (주일) 건강한 부부관계
- 6월 11일 (주일) 성경공부(인용)
- 6월 25일 (주일) 총강예배, 건강한 부부관계

성경공부 및 건강한 부부관계 교재

-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 건강한 부부관계 「소통하는 부부」



(그림 3-15) 음암교회 영패밀리 브로슈어

영패밀리는 동일한 스태프로 2018년까지 진행되었으나 개편 및 보완점이 처음 시작한 2017년부터 2년간 계속해서 동일하게 제기되었고, 2019년 이후에는 교회 내부 문제와 코로나 시기로 인해 다시 부활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역이 되어버렸다. 영패밀리 사역팀이 꾸준히 교회에 요청한 사항은 우선 조직 개편이었다. 조직 개편을 요청했다. 초기에 전도부와 협력하여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최종 목적이 전도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기에 모임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단독부서로 독립하거나, 전도부가 아닌 자녀들의 교회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교육부 산하의 장년교육부서로 이동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 부부 중심의 모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돌봐줄 키즈케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한 교회 차원에서의 봉사자들이 충원되지 않았다. 그리고 2016년에 실시한 젊은

부부 힐링 캠프를 이후 1박 2일 일정으로 확대하고자 했으나, 교회의 반대와 예산 문제로 실시하지 못했다.

필자가 교회에 부임한 2019년에는 영패밀리가 열리지 못했다. 또한 필자는 영패밀리를 새롭게 담당하게 된 후, 당시 스텝이었던 5060세대와 영패밀리 공동체원이었던 3040세대를 각각 만나 후기를 듣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교회 조직 내에 정착하지 못한 점과 봉사자 부족이 표면적인 실패 원인으로 보였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역이 부부 관계에만 집중되다 보니, 가정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인 자녀를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키즈케어의 대상으로만 여겼다는 점이다. 그리고 소그룹별 나눔이나 소통보다는 세미나 위주의 부부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다 보니, 외부적인 시련이 닥쳤을 때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소그룹이 활성화되었다면 코로나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도 적응하고 추후 회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따라서 앞서 분석한 3040 세대에 대한 이해는, 표본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응암교회 3040세대 교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즉, 이 세대에게 목회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인생의 전환기에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일이다. 특별히 자신이 신앙인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느끼는 이유가,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주장하듯,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응암교회가 코로나와 교회 내부 문제로 인해 침체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3040 부모 세대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은 그들의 요구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필요이다. 3040 세대는 앞으로 응암교회의 주축이 될 세대이므로 그들이 성경 안에서 바로 세워질 때 그들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게 될 것이고, 이들의 성장이 바로 응암교회 안에 새로운 부흥을 가져올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응암교회의 3040 세대 부모가정은 자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정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예배나 신앙대화와 같은 가정 중심 신앙 활동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회의 사역 또한 이러한 가정 신앙 형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발전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은 다음 세대 신앙 형성이 단순히 교회 교육 프로그램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 기능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회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형성을 지원하는 목회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성경과 신학적 관점에서 가정의 신앙적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장에서는 가정사역의 성경적·신학적 기초를 살펴보려고 한다.

IV. 3040 세대 가정사역을 위한 성경적·신학적 기초

앞서 3040 세대 특징과 응암교회 사역 사례의 실패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가정사역의 요구와 필요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3040 세대 가정사역을 위한 성경적·신학적 기초를 세우고자 한다. 또한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정과 교회의 관계를 분석하고 현대 사회 속 가정의 변화와 3040 세대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교회가 왜 3040 세대 가정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A. 성경에 나타난 가정의 목적과 기능

성경에서 가정의 기원은 인간 사회의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비롯된 제도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남자와 여자를 서로 연합하게 하심으로 가정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셨다. 이러한 사실은 가정이 단순한 사회적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 질서의 기본 단위임을 보여준다. 특히 창세기 2장 24절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라고 선언함으로써 결혼과 가정의 기원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 말씀은 가정이 단순한 생물학적 결합이나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적 공동체임을 나타낸다.³⁷ 가정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형성된 기본

³⁷ 김영한, 『기독교 신학 개론』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 215.

공동체로 이해하면서 인간의 사회적 삶과 신앙적 삶이 동시에 형성되는 중요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명령은 흔히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으로 이해되며, 가정을 통해 생명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세상 속에서 실현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³⁸ 이러한 창조 명령이 인간의 삶의 기본 구조 속에서 가정 공동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이와 같은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가정의 목적은 첫째, 남녀의 연합을 통한 관계적 공동체의 형성, 둘째, 생명의 탄생과 양육을 통한 창조 질서의 확장, 셋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사랑과 책임의 관계를 경험하는 삶의 기초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은 가정을 단순한 사적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구현되는 공동체로 이해하게 한다.

성경은 가정을 창조 질서 속에서 형성된 공동체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체로 제시한다. 하나님은 종종 개인이 아니라 가정을 단위로 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의 개인적인 신앙뿐 아니라 그의 가정과 후손을 통해 언약 공동체가 형성될 것을 약속하셨다. 이러한 사실은 가정이 단순한 혈연 공동체를 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확장되는 통로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특히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와 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라고 설명한다. 이는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삶의 방식이 전수되는 신앙교육 공동체임을 의미한다.

³⁸ 박영돈, 『조지신학 강의』 (서울: 복있는사람, 2013), 342.

구약성경에서 이러한 가정 중심의 신앙교육은 매우 강조되는데, 신명기 6장 6-7절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명령한다.

기독교교육학자 고용수 교수는 이 본문이 신앙교육의 일차적 책임이 가정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이며, 교회를 세우시기 이전에 창조 질서에 따라 형성된 기관이다. 이러한 가정은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제정해주신 제도와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결혼이라는 예식을 통해 가정을 이루어가는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집례하신 아담과 하와의 주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 2:24). 가정은 부모를 떠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어 형성되는 공동체이다. 이러한 행위는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용수 교수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인류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변혁을 일으킨 가장 큰 두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다. 두 가지의 사건이라고 함은 창조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가정’의 탄생이며, 또 하나는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완성이 ‘교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가정과 교회는 탄생한 배경은 다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만드신 의도가 있고, 그 의도와 목적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같은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고용수 교수는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 본질상 별개의 것일 수 없고, 따라서 가정사역과 교회 목회 역시 불가분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곧 교회는 가정의 질적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정 역시 교회 성장과 성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³⁹

³⁹ 고용수, “교육신학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 『생명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나라와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가정의 의미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창세기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고, 그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가정은 세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가정은 결혼으로 연합한 한 남자와 한 여자에 친자녀나 입양자녀가 더해진 공동체를 의미하며, 이차적으로는 기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성경적 관점에서 가정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이 형성되고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영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신앙 전수의 사명을 성경은 일관되게 강조한다. 따라서 신앙의 대물림을 위해 교회는 가정을 이루려는 이들과 이미 가정을 이룬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 가정을 돌보아야 한다.

B. 신앙의 대물림에 대한 구약적 이해

구약성경에서 신앙의 전수는 단순한 종교적 교육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지속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종종 개인이 아니라 가정과 후손을 포함한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셨으며, 이러한 언약 구조 속에서 신앙은 세대를 통해 계승되도록 의도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의 개인적인 신앙뿐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 언약 공동체가 형성될 것을 약속하셨다. 특히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심으로써 언약이 세대를 통해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와 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신앙의 계승이 단순한 전통 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삶의 방식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언약 구조 속에서 신앙 전수는 단순한 교육 행위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⁴⁰

가정의 사전적 의미는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⁴¹ 이다. 이 ‘가정’ 이란 단어는 구약에 노아의 아들들의 후예들을 가리킬 때 처음으로 등장한다. 구약에서 ‘가정’ 을 가리키는 단어인 “미스파하”(mispaha)는 씨족(sebet)과 가구(bayit: bet ab)사이에서 해당되는 중간 규모의 가족 집단을 가리킨다.⁴²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가족의 개념은 넓은 범위의 공동체를 통칭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은 한 조상의 후손이므로 자신들을 대단위의 혈족으로 여겼다. 즉 현대의 가족 개념처럼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인원들뿐만 아니라 남녀 노예일가, 첩 그리고 거하는 식객들인 외국인들까지도 모두 가족 속에 포함되었다.⁴³ 가정과 관계하여 구약에 나오는 주된 용어는, “백성”, “지파” 이다. “백성” 은 흔히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고, “지파” 는 야곱의 열두 아들의 후손인 백성의 부족 구조를 나타내며, 가정보다는 큰 하부 집단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정과 가족은 때로는 한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며, 그들이 속한 지파를

⁴⁰ 김정우, 『구약신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7), 214.

⁴¹ 다음사전, <https://dic.daum.net/search.do?dic=all&q=%EA%B0%80%EC%A0%95> [2026.03.02최종접속]

⁴²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사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96.

⁴³ 창 17:23, 27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일컫기도 한다.

이스라엘은 다른 고대 근동 문화와 마찬가지로 부계(정식가계가 아버지의 혈통을 따른다), 시집살이(결혼한 여인은 남편 집안의 식구가 된다), 가부장제(아버지가 집안을 주관한다)의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 “가부장제” (아버지의 지배) 보다는 “아버지 중심” 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하겠다.⁴⁴

구약학자 다니엘 블록(Daniel Block)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의 주된 책임을 다음과 같이 아홉 가지로 꼽았다.⁴⁵

- 첫째, 직접 솔선하여 여호와께 엄격히 충성을 다한다. (창6:9; 창17:1-7; 수24:15)
- 둘째, 가족들을 이끌어 민족의 절기를 지키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기억을 되새긴다.
- 셋째, 가족들에게 출애굽의 전통과 성경을 교육한다.
- 넷째, 율법에 따라 토지를 관리한다.(레25장)
- 다섯째, 가족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와 안식을 공급한다.
- 여섯째, 외부의 위협에 맞서 집안을 보호한다.(삿 18:21-25)
- 일곱째, 시민들의 공식집회에서 장로로 섬기며 집안을 대변한다.(룻4장)
- 여덟째, 가족들의 안녕과 가정의 조화로운 운영을 유지한다.
- 아홉째, 씨족이나 지파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한다.

이외에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책임도 따로 기술하고 있다.⁴⁶

첫째,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

둘째, 생후 8일째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다.(창17:12).

⁴⁴ 안드레아스 퀴스텐버거, 데이비드 존스, 『성경의 눈으로 본 결혼과 가정』 윤종석 역 (고양: 아바서원, 2024), 106.

⁴⁵ Daniel I. Block, “Marriage and Family in Ancient Israel,” in *Marriage and Family in the Biblical World*, ed. Ken M. Campbell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3), xx-xx.

⁴⁶ 퀴스텐버거, 존스, 『성경의 눈으로 본 결혼과 가정』, 106.

셋째, 아들의 영적 성장을 촉진한다. 아들 앞에서 직접 솔선하여 하나님과 성경에 깊이 헌신한다. 아들에게 구원과 언약의 전통과 성경을 교육한다. 아들의 영적 헌신을 공적으로 증언한다. (출12:24, 13:8).

넷째, 잘못을 범한 아들을 훈육한다. 기어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들을 지역사회의 지도자에게 데려가 징계를 받게 한다.(신8:5).

다섯째, 적합한 신봉감을 찾아 중매하며(창24장, 샏14장). 죽기 전에 자녀를 축복한다.

구약성경에서 신앙교육의 중심은 성전이나 제사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을 가진 신앙교육의 일차적 책임자였다. 이러한 원리는 신명기 6장 4-9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본문은 흔히 “쉐마” (Shema)로 불리며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 고백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고 명령하셨다. 이 본문은 가정을 신앙 형성의 가장 중요한 교육 공동체로 이해하도록 만든다.⁴⁷ 이는 신앙 교육이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구약성경은 가정을 단순한 생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신앙교육 공동체로 이해한다. 또한 구약성경은 신앙의 전수가 부모 개인의 책임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도록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체였다. 예를 들어 시편 78편 4절은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⁴⁷ 고용수, 『기독교 교육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201.

말한다. 이 말씀은 공동체 전체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구약성경이 신앙의 전수를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명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⁸ 따라서 구약성경에서 신앙의 대물림은 가정, 공동체, 그리고 예배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총체적인 신앙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성경은 신앙의 전수를 언약 공동체의 지속성과 깊이 연결된 신앙적 사명으로 이해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신앙이 세대를 통해 이어지도록 하셨으며, 가정은 이러한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교육 공동체로 기능하였다. 또한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전통을 통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도록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신앙의 대물림이 단순한 종교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구원 역사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전승하는 공동체적 사명임을 보여준다.

C.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정과 교회의 관계

신약성경에서 가정은 단순한 사적 공간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신앙 공동체의 장이었다. 초대교회는 특정한 종교 건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가정이 교회의 형성과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가정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한다. 예를 들어 루디아의 가정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 자신의 집을 교회 공동체의 모임 장소로

⁴⁸ 김영한, 『기독교 신학 개론』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 233.

제공하였다(행 16:15).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 역시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중요한 장소로 사용되었다(롬 16:3-5).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가 가정을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기반으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⁴⁹ 초대교회가 가정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였다는 점에서 가정은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공동체로 이해될 수 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가정교회” (house church)의 형태이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별도의 예배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에서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졌다. 로마서 16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고 말한다. 또한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도 가정 안에서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언급된다. 이러한 표현은 가정이 단순한 모임 장소가 아니라 교회의 실제적인 공동체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초대교회의 가정교회 구조를 통해 기독교 공동체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다.⁵⁰ 이러한 가정교회의 모습은 가정과 교회가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신앙 공동체임을 나타낸다.

특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 하신 것을 아직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⁵¹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정과 결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를 보여 준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셨듯이, 예수님도 가정을 회복하고 축복하기를

⁴⁹ Ibid., 241.

⁵⁰ 차준희, 『구약신학의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64.

⁵¹ 마태복음 19:4-6(표준새번역).

원하셨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축복하시고,(요2:1-11),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 주시고,(마8:14-15),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시고(눅8:40),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눅7:11-17),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도 살리시면서(요11장) 그의 가정을 회복 시키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정을 회복하고 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족의 의미를 혈연관계에 한정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가족의 차원으로까지 확장하여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둘러앉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막3:35)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정과 가족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겠다.⁵²

신약성경은 가정과 교회를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신앙 공동체로 이해한다. 가정은 개인의 신앙이 형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며, 교회는 그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성장시키는 신앙 공동체이다. 특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는 기독교 가정의 관계 질서를 설명하면서 가정이 신앙 실천의 중요한 공간임을 강조한다.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함으로써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본문은 가정이 신앙 형성의 1차적 공동체이며, 교회는 이를 지원하고 확장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보여 준다.⁵³ 따라서 신약성경은 가정과 교회를 분리된 영역으로 이해하기보다 서로 협력하는 신앙 공동체로 제시한다.

신약성경에서 가정과 교회의 관계는 다음 세대의 신앙 형성과 밀접하게

⁵² John Williams, 『결혼과 가정생활』 김영배 역 (서울:신광출판사,1988), 38.

⁵³ 고용수, 『기독교 교육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214.

연결되어 있다. 신앙은 개인적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고 성장한다. 대표적인 예는 디모데의 신앙 형성 과정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딤후 1:5). 이는 가정이 신앙 형성의 중요한 출발점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디모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울의 지도와 훈련을 통해 신앙 지도자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은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다음 세대의 신앙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신약성경이 가정과 교회를 다음 세대 신앙 형성을 위한 상호 협력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⁴

이와 같이 신약성경은 가정과 교회를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신앙 공동체로 이해한다. 초대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가정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또한 신약성경은 가정을 신앙 형성의 기본 공동체로 제시하면서 교회가 이를 지원하고 확장하는 공동체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조한다. 이러한 이해는 오늘날 교회가 가정사역을 수행함에 있어 가정과 교회를 분리된 영역으로 이해하기보다 상호 협력적인 신앙 공동체로 바라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D. 가정사역에 대한 목회신학적 정리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가정의 목적과 기능을 살펴보고, 구약과 신약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세대 간 전수와 가정과 교회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교회의 가정사역은 단순한 프로그램 차원을 넘어

⁵⁴ 김정우, 『구약신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7), 226.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목회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가정을 인간이 처음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로 제시한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인간이 관계를 형성하고 사랑과 책임을 배우도록 하셨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신앙이 형성되도록 하셨다. 특히 신명기 6장 6-7절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시편 145편 4절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도록 명령한다. 이러한 본문들은 가정이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임을 보여준다. 가정이 신앙 형성의 가장 중요한 교육 공동체이며 부모의 신앙적 삶이 자녀의 신앙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신앙교육이 교회 프로그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신앙 경험이 필수적이다.⁵⁵ 인간의 신앙과 인격 형성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고 했을 때, 가정을 신앙 형성의 기본적인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다. 목회적 시점으로, 교회는 가정을 신앙교육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고, 부모 훈련, 가정예배 지원, 가정 내 신앙교육 자료 제공 등을 통해 가정의 신앙 형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가정을 지원하는 신앙 공동체이어야 할 것이다. 가정과 교회를 경쟁적인 공동체로 이해하지 않고 상호 협력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난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였으며, 이러한 가정 모임은 교회의 중요한 공동체적 형태였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에서 루디아의 가정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교회 공동체의 모임 장소가 되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 역시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가 가정을 대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⁵⁵ 정웅섭, 『기독교 교육과 가정』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112.

교회와 가정이 상호 협력할 때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⁵⁶ 목회적 적용으로, 교회는 가정을 위한 신앙 멘토링, 가정별 상담, 부모 세미나 등을 운영하고, 가정이 교회 신앙 공동체와 연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교회의 교육 사역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다음 세대의 신앙 형성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성경은 신앙이 세대를 통해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세대를 통해 이어지도록 하셨다. 특히 시편 78편 4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정사역은 단순한 가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⁵⁷ 신앙의 세대 간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동체의 신앙 전통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세대의 신앙 형성을 위해 교회가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가정사역은 단순한 가족 지원이 아니라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의 전략적 사역이다. 교회는 부모 신앙 훈련과 가정예배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변화는 가정의 구조와 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개인주의의 확산은 가정의 교육 기능과 신앙 전수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3040 세대는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시기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교회가 가정 중심의 목회 패러다임을 회복해야 한다.⁵⁸ 그러므로 가정사역이 교회의 교육

⁵⁶ 김영한, 『기독교 신학 개론』 (서울: 송실대학교출판부, 2012), 245.

⁵⁷ Ibid., 118쪽

⁵⁸ 이정석, 『기독교 가정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156.

사역과 목회 전략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가정을 목회의 핵심 대상으로 삼고, 가정 중심 목회 패러다임을 회복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가정을 신앙 형성의 기본 공동체로 제시하며 교회가 이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공동체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조한다. 이러한 성경적 이해는 오늘날 교회가 가정사역을 단순한 선택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목회 사역으로 인식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다음 세대의 신앙 형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현대 교회의 상황 속에서 가정사역은 교회의 미래와도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다음 세대의 신앙을 형성하는 목회적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나온 가정사역 목회적 원리를 종합하면 4가지 통합적 목회 전략이 가능하다. 첫째는, 가정의 신앙 형성 기능을 강화하는 사역, 둘째는, 교회와 가정의 상호보완적 관계 회복, 셋째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위한 체계적 사역 설계, 넷째는, 현대 사회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가정 중심 목회 모델 구축이다. 이를 통해 교회는 3040 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의 가정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기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가정과 교회가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하는 목회적 생태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V. 3040 세대를 위한 가정사역 방향성과 목회 모델 제안

본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성경적·신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3040 세대를 위한 가정사역의 방향성과 목회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가정의 구조와 기능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다음 세대 신앙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3040 세대는 가정의 신앙교육과 영적 돌봄을 수행하는 데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가정을 목회의 중요한 대상이자 동역자로 인식하고,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사역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사역의 방향성과 목회 전략을 성경적 원리에 기초하여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A. 3040 세대 가정사역의 기본 원리

최근 한국교회에 대한 여러 조사에서 가족종교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크리스천 중고생을 대상으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시기를 조사한 결과, 모태신앙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에 나왔다는 응답이 무려 80%에 달했다.⁵⁹

가족종교화는 종교적 신념과 가치, 그리고 신앙 실천이 가족이라는 일차적 공동체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가족

⁵⁹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231호)-개신교인의 신앙 계승 실태,” 넘버즈,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00&page=5 [최종접속2026.3.2].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며, 그 과정에서 부모의 신앙 태도와 종교적 실천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자녀의 종교적 정체성과 신앙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의 종교적 헌신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대화,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같은 종교적 실천은 자녀의 신앙 형성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⁶⁰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장으로 이해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은 단순한 종교 지식 전달을 넘어 신앙적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과정이며, 이는 자녀의 신앙 유지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⁶¹ 이러한 점에서 부모의 신앙적 삶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모델이 되며, 부모의 종교적 실천과 신앙 태도는 자녀의 종교적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⁶²

가족종교화는 개신교 역사가 길어지면서 개신교인 가족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과 이와 반대로 전도를 통한 새신자가 감소하는 탈종교화 현상이 맞물린 결과이다.

3040 세대 가정사역은 단순히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역이 아니라, 현대 사회 속에서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목회적 접근이다. 특히 3040 세대는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시기로서 신앙교육과 가정의 영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세대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개인주의 문화 확산은 가정의 신앙교육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가정을 지원하고 신앙 공동체로 세워 가는 목회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3040 세대 가정사역을 효과적으로

⁶⁰ 정웅섭, 『기독교교육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215쪽.

⁶¹ 박상진, 『기독교교육과 신앙형성』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7), 132쪽.

⁶² 정일용, 『기독교 가정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97쪽.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리가 필요하다.

1. 세대 맞춤형 목회 원리

3040 세대 가정사역은 세대의 특성과 삶의 환경을 고려한 목회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 세대는 직장과 가정의 책임을 동시에 감당하는 시기로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험하는 세대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목회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대 교회의 교육 사역이 세대의 특성과 삶의 환경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신앙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⁶³ 따라서 교회는 3040 세대의 삶의 구조와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목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교육, 소그룹 모임, 가정 중심 신앙 훈련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역을 통해 이들의 참여를 도울 수 있다.

2. 부모 신앙 리더십 강화 원리

3040 세대 가정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모의 신앙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며 부모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자녀에게 중요한 신앙 모델이 된다. 특히 에베소서 6장 4절은 부모에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며 부모의 신앙교육 책임을 강조한다.⁶⁴ 부모의 신앙적 리더십이 회복될 때 가정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부모 교육, 신앙 훈련, 가정예배 지도 등을 통해 부모가

⁶³ 정웅섭, 『기독교 교육과 가정』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132.

⁶⁴ 이정석, 『기독교 가정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141.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서도록 도와야 한다.

3. 가정 영성 형성 원리

가정사역의 중요한 목표는 가정이 영적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성경 읽기, 신앙적 대화 등은 자녀의 신앙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정 영성은 특별한 종교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교회는 가정이 일상 속에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⁶⁵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경험이 다음 세대 신앙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4. 교회와 가정의 협력 원리

가정사역은 교회와 가정이 함께 협력할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교회는 가정을 대신하여 신앙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가정을 지원하고 돕는 공동체이다. 교회와 가정이 협력할 때 다음 세대 신앙 형성이 더욱 건강하게 이루어진다.⁶⁶ 따라서 교회는 가정과의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목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5. 지속 가능한 신앙 형성 구조 원리

⁶⁵ 고용수, 『기독교 교육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218.

⁶⁶ 김영한, 『기독교 신학 개론』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 247.

가정사역은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앙 형성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행사나 프로그램만으로는 가정의 신앙 형성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교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정사역 구조를 설계하고 부모 교육, 가정예배, 소그룹 모임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정사역이 교회의 목회 전략 속에서 지속적인 구조를 가지고 운영될 때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⁶⁷

본 절에서 3040 세대를 위한 가정사역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시한 다섯 가지 원리는 단순한 3040 세대 가정 프로그램이나 교육 활동의 차원을 넘어, 교회와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신앙 형성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심적 장이 되고 교회는 이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공동체로 기능할 때,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이 보다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원리들을 토대로 다음 절에서는 3040 세대의 가정과 교회가 실제 목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모교육을 통한 신앙 회복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B. 부모교육을 통한 신앙 회복 모델

현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목회적 과제 가운데 하나는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 문제이다. 특히 3040 세대는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 가정 경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생애 주기적 특성 속에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약화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 개인의 신앙 약화뿐 아니라 가정에서

⁶⁷ 이정석, 『기독교 가정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156.

이루어져야 할 신앙교육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⁶⁸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자녀 신앙교육은 주로 교회학교나 교회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가정이 신앙 형성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교회 교육과 가정 생활 사이의 신앙적 단절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교회의 교육 사역이 가정의 신앙교육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다음 세대 신앙 형성의 지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⁶⁹ 성경은 부모가 자녀 신앙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신명기 6장 6-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신앙을 전수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성경적 관점은 가정이 단순한 생활 공동체를 넘어 신앙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영적 공동체임을 보여준다.

한국교회 초기 성장 과정에서 가정 중심의 신앙 전통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가정의 신앙교육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으며, 교회 중심 교육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회의 구조적 문제로 다음 세대 신앙 형성을 위해서는 교회 중심 교육에서 가정 중심 신앙 형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⁷⁰ 특히 부모의 신앙 상태와 영적 리더십은 자녀의 신앙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일상 속에서 신앙을 실천할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게 된다. 반대로 부모의 신앙이 약화되거나 신앙 실천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녀의 신앙 형성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모의 신앙 회복은 다음 세대

⁶⁸ 김도일, 『기독교 가정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2), 45.

⁶⁹ 이정효,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 2005), 214.

⁷⁰ 정성진, 『미래교회와 가정사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4), 88.

신앙 형성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040 세대를 대상으로 한 가정사역은 단순히 자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부모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가정에서 신앙이 실제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돕는 목회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의 신앙을 회복하고 가정 신앙 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회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부모교육 기반 신앙회복 모델은 네 단계의 구조로 구성된다.

1. 신앙 인식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부모가 자신의 신앙 상태와 가정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가정은 신앙이 가장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신앙공동체이며, 가정에서의 신앙 경험이 자녀의 평생 신앙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⁷¹ 이는 가정 신앙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부모들이 가정 신앙교육의 성경적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신앙 회복 단계

⁷¹ 박영호, 『가정과 신앙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67.

두 번째 단계는 부모 개인의 신앙 회복을 돕는 단계이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회복을 경험할 때 가정 신앙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의 영적 성숙이 가정 신앙교육의 핵심 요소이다. 부모가 먼저 신앙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자녀 신앙교육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⁷² 따라서 교회는 부모를 대상으로 말씀 묵상, 기도 훈련, 신앙 나눔 등의 영적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신앙 회복을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신앙 적용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가정에서 실제적인 신앙 실천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가정예배, 신앙대화, 일상 속 신앙 실천 등이 강조된다. 가정 신앙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가정예배와 신앙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경험은 자녀가 신앙을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⁷³

4. 공동체 연계 단계

마지막 단계는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신앙 형성 구조를 만드는 단계이다. 가정 신앙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미래 교회의 중요한 목회 전략 가운데 하나로 가정 중심 신앙 형성을 해야 하며, 교회가 가정을 신앙교육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교회와

⁷² 김도일, 『기독교 가정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2), 102.

⁷³ 김성중, 『가정신앙교육의 실제』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 54.

가정이 협력하는 구조를 형성할 때 가정 신앙교육은 보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⁷⁴ 교회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부모 소그룹 모임, 가정 신앙 자료 제공 등을 통해 가정 신앙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별로 부모교육을 통한 신앙회복 모델이 실제 목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단기적인 세미나 형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부모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신앙을 격려할 수 있는 부모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회 교육 사역과 가정 신앙교육이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교회의 장기적인 가정사역 구조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부모들이 가정 신앙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는 본 연구에서 단계별로 제안하는 표 5는 3040 부모 신앙회복 교육 프로그램의 예시이다.

단계	프로그램	주요내용	운영방식	기대효과
신앙 인식	부모 신앙 점검 세미나	부모 자신의 신앙 상태 점검, 가정 신앙교육의 중요성 이해	4주 세미나	부모의 신앙 인식 회복
신앙 회복	부모 영성 훈련	말씀 묵상, 기도 훈련, 신앙 나눔	소그룹 모임	부모 개인 신앙 회복
신앙 적용	가정예배 훈련	가정예배 방법 교육, 가정예배 자료 제공	가정 실습 +교회교육	가정 신앙 실천 시작
공동체	부모 신앙 코칭	부모 간 신앙	부모 소그룹	신앙 공동체 형성

⁷⁴ 최윤식, 『미래교회 전략』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8), 173.

연계		경험 나눔		
공동체 연계	교회-가정 연계 프로그램	교회 교육과 가정 실천 연결	교회 교육 연계	지속적 신앙 형성

(표 5-4) 3040 부모 신앙회복 교육 프로그램 구성

이와 같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의 신앙 회복을 돕는 동시에 가정에서의 신앙 실천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부모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신앙을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될 때 가정 신앙교육은 더욱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교회는 부모들에게 가정예배 자료, 신앙대화 질문, 자녀 신앙교육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교회 교육과 가정 신앙교육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며 다음 세대 신앙 형성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⁷⁵ 부모교육을 통한 신앙회복 모델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여 신앙 형성을 이루어 가는 통합적 목회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부모교육을 통한 신앙회복 모델은 부모 개인의 신앙 회복을 출발점으로 하여 가정에서의 신앙 실천과 교회 공동체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 신앙 형성의 주체적 리더로 세워질 때 가정은 신앙 전수의 중요한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음 세대의 건강한 신앙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부모교육 사역을 가정사역의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⁷⁵ 김도일, 『기독교 가정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2), 118.

C. 가족 중심 신앙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현대 교회는 다음 세대 신앙 형성의 약화라는 중요한 목회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와 청소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회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자녀의 신앙 형성을 충분히 이루기 어려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녀의 신앙 형성이 교회 교육뿐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3040 세대는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시기로서 가정의 신앙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세대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변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 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⁷⁶ 다음 세대 신앙 형성에서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신앙교육 사역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 기능하도록 돕는 가족 중심 신앙 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족 중심 신앙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정예배이다. “기독교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기관이므로 그 자체가 살아 있는 교회의 한 단위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선교의 역할을 하는 축소된 교회이다.”⁷⁷ 그렇기 때문에 믿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이 예배를 통해 온 가족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서로를 알아가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가정예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다.

⁷⁶ 정웅섭, 『기독교 교육과 가정』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145.

⁷⁷ 어디스 딘, 도한호역, 『성서적 가정관』 (서울: 요단출판사, 1981), 17.

가정예배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일체감에서 시작하여 가족 전체를 하나님께 향하게 한다. 이러한 가정예배는 믿음의 표현인 동시에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귀한 일이다.⁷⁸ 성경에는 가정예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예배이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가장 잘 알려 줄 수 있는 게 바로 가정예배이다. 성경 전체에 걸쳐 이전의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과 믿음이 잘 계승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가정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가장 분명하게 구별되는 현장 중 하나이다. 이 가정예배를 통하여 부모는 물론 자녀들은 그들의 신앙 형성과 변혁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경험한다.⁷⁹ 어떤 이들은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변화되기도 한다. 물론 그 변화를 지속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 드러지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훈련한다면, 가정예배는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신앙이 자연스레 대물림되는 가장 강력한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가정예배는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정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리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월 1회 이상 드리는 비율은 모두 20%로 나타났으며, 그중 주 1회 이상 드리고 있는 비율은 14%로 7가구 중 1가구 꼴이었다.⁸⁰ 많은 가정이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⁷⁸ 정정숙,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 베나디, 1994), 294.

⁷⁹ 신형섭, 『가정예배 건축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7), 29.

시간을 갖기 어려워하며, 부모 또한 가정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가정예배를 회복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정예배 회복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표로 만들어 보았다. 표 6의 가정예배 회복 프로그램은 부모가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가정예배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로 가정예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주차	교육 내용	세부 교육 내용	실천 과제
1주	가정예배의 의미	가정예배의 성경적 근거와 중요성	가족과 함께 기도하기
2주	성경 읽기 방법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는 방법 교육	가족과 성경 읽기
3주	신앙대화 방법	자녀와 신앙대화를 나누는 방법	자녀와 신앙대화 실천
4주	가정예배 실습	가정예배 순서와 진행 방법	가족 예배 진행

(표 5-5) 가정예배 회복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주차에서는 가정예배의 의미와 성경적 근거를

⁸⁰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231호)-개신교인의 신앙 계승 실태,” 넘버즈,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00&page=5 [최종접속2026.3.2].

설명함으로써 부모가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두 번째 주차에서는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는 방법을 교육하며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다. 세 번째 주차에서는 자녀와 신앙에 대해 대화하는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지막 주차에서는 실제 가정예배를 진행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각 가정이 직접 가정예배를 실천하도록 한다. 이러한 가정예배 회복 프로그램은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고 가족이 함께 신앙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신앙 실천을 통해 자녀의 신앙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예배를 중심으로 한 가정 중심 신앙교육이 다음 세대 신앙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교회가 가정을 지원하는 목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D. 소그룹 기반 가정사역 구조 설계

가정 중심 신앙 형성을 위한 목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지속적인 사역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정사역은 일회성 행사나 단기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지속적인 신앙 형성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목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현대 교회는 성도들의 삶의 환경이 복잡해지고 공동체적 유대가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목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신앙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교육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 경험이 중요하다.⁸¹ 3040 세대 가정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라는 이중적인 책임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지원 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그룹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사역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소그룹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신앙생활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목회 구조이다. 대형화된 교회 구조 속에서 성도들은 종종 익명성을 경험하며 깊은 관계 형성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그룹 공동체는 성도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신앙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된다. 소그룹 공동체는 교회의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⁸² 특히 가정사역의 관점에서 볼 때 소그룹 공동체는 여러 가정이 함께 신앙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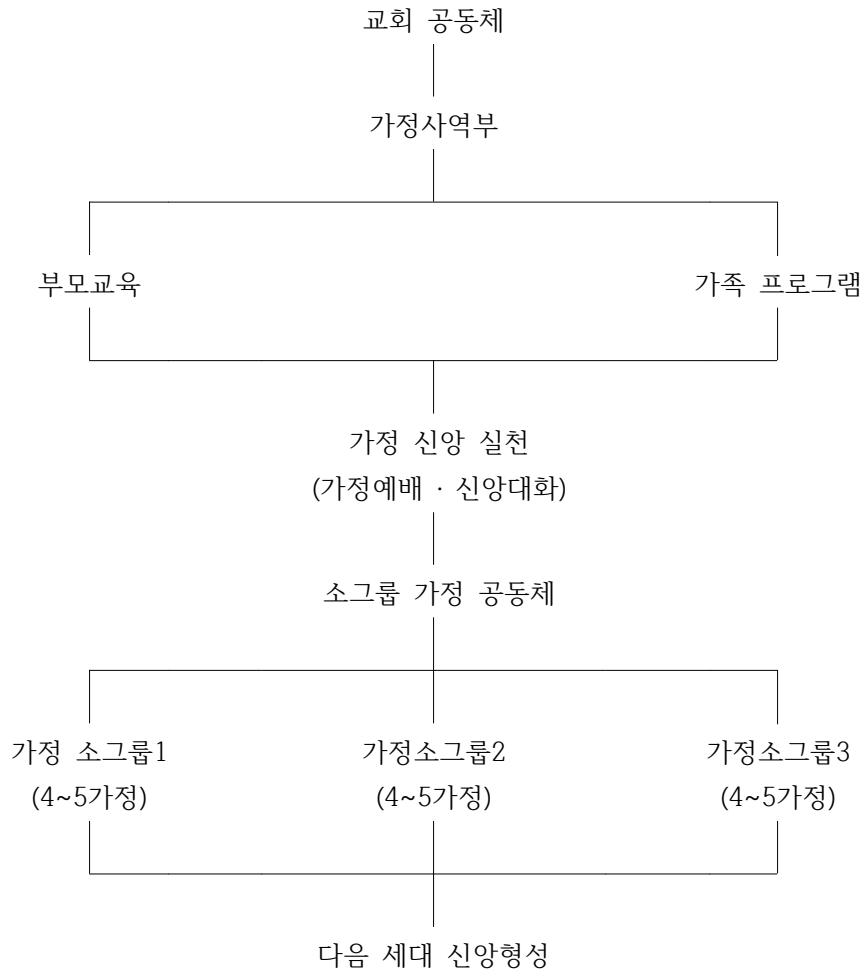
3040 세대를 위한 가정사역은 가정 단위의 소그룹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는 비슷한 연령대와 비슷한 연령의 자녀를 둔 가정들이 함께 모여 신앙 교제를 나누는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이는 부모들이 서로의 신앙 경험을 나누고 자녀 양육과 신앙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장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정 간의 신앙 교제가 부모들에게 신앙교육에 대한 동기와 격려를 제공하며, 가정에서의 신앙 실천을 지속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⁸³ 소그룹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가정 중심 소그룹 공동체는 단순한

⁸¹ 정웅섭, 『기독교 교육과 가정』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168.

⁸² 이정석, 『기독교 가정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182.

⁸³ 정웅섭, 『기독교 교육과 가정』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171.

교제 모임이 아니라 신앙 형성과 가정 신앙교육을 지원하는 공동체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그룹 모임은 말씀 나눔, 기도, 신앙대화, 가족 간의 교제 등을 균형 있게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를 도표화해 보았다.



(표 5-6) 소그룹 기반 가정사역 구조

위 구조는 3040 세대 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정사역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목회 모델이다. 이 구조에서 교회는 가정사역을 총괄하는 가정사역부의 목회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부모교육 사역과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가정에서의 신앙 실천을 지원한다. 특히 부모교육 사역은 부모의 신앙 회복과 가정 신앙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가족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신앙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 가정에서의 신앙 실천이 이루어지며 가정예배와 신앙대화와 같은 신앙 활동이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가정 중심 신앙 실천은 소그룹 공동체와 연결되어 가정 간의 신앙 교제를 형성하게 된다. 가정 소그룹 공동체는 여러 가정이 함께 모여 말씀 나눔과 기도, 교제를 통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간이 된다. 이러한 구조는 가정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실천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소그룹 기반 가정사역 구조는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여 다음 세대 신앙 형성을 이루어 가는 통합적인 목회 모델로 이해될 수 있다.

소그룹 기반 가정사역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그룹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소그룹 리더는 단순히 모임을 진행하는 역할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돕는 목회적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가정 중심 소그룹 공동체에서는 리더가 가정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부모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⁸⁴ 소그룹 리더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앙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지도자의 영적 리더십이 공동체 신앙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회는 소그룹 리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가정사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리더 양성을 위한 소그룹 인도법이나 가정사역 이해와 같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⁸⁴ 이정석, 『기독교 가정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188.

가정 중심 신앙 형성을 위한 목회 사역은 단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양한 사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는 신앙교육 구조가 형성될 때 다음 세대 신앙 형성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⁸⁵ 부모교육, 가정예배, 가족 프로그램, 소그룹 공동체가 서로 연결된 통합적인 사역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의 신앙을 회복하고, 가정예배와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에서의 신앙 실천을 강화하며,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지속적인 신앙 교제와 영적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가정사역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그룹 기반 가정사역은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다음 세대 신앙 형성을 이루어 가는 중요한 목회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역 구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생활을 경험하도록 돕고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가정 간의 신앙 교제를 통해 공동체적 신앙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현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음 세대 신앙 형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는 신앙교육 구조가 필요하며, 소그룹 기반 가정사역은 이러한 목회적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E. 응암교회 적용을 위한 단계별 실행 로드맵

앞선 장에서는 3040 세대를 위한 가정사역의 성경적·신학적 기초와 목회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회 모델이 실제 교회 사역에서 의미 있는

⁸⁵ 정웅섭, 『기독교 교육과 가정』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175.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사역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목회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적용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가정사역 모델을 실제 교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인 응암교회를 중심으로 3040 세대 가정사역을 적용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 전략을 제안한다.

응암교회는 등록교인 1,431명의 규모로 연평균 918명이 출석하고 있다. 예배출석 성도들의 연령 분포는 70대 이상 남자는 23%, 여자는 29%인 반면 30대는 남자 10%, 여자는 9%이고, 40대 남자는 12%, 여자는 13%이다. 10대는 남자가 12%, 여자가 6%이다. 이러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응암교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얇아져 가고 있다. 또한 다음 세대 사역도 출석 수가 줄어들어 따라 부서 통폐합(유치1, 2부가 유치부로, 아동교육부가 3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응암교회 역시 현대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응암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과 연결되는 3040 세대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사역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음 세대 신앙 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정사역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사역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사역이다. 교회는 단계적인 실행 전략을 통해 가정사역을 도입하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정사역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단계의 실행 전략을 제안한다.

준비 단계는 가정사역을 교회 공동체 안에 도입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가정사역의 필요성을 교회 공동체와 공유하고 사역을 위한

조직과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목회자는 설교와 교육을 통해 가정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도들이 가정사역의 비전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가정사역을 담당할 사역 팀을 구성하고 소그룹 리더를 선정하여 사역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⁸⁶

교육 단계는 부모와 리더들을 대상으로 가정사역 교육을 진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가정예배 교육을 통해 부모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녀 신앙교육의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돕고 가정에서의 신앙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⁸⁷

실행 단계는 실제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가정예배 프로그램, 가족 신앙 훈련 프로그램, 소그룹 가정 공동체 등이 운영된다. 특히 소그룹 공동체는 가정사역의 지속적인 실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공동체 구조로서 부모들이 서로의 신앙 경험을 나누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지속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⁸⁸

정착 단계는 가정사역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돕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사역의 효과를 평가하며 필요한 개선을 진행한다.⁸⁹ 또한 교회는 가정사역 리더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새로운 가정들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확장해야 한다.

이와 같은 단계별 전략을 통해 가정사역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회는 장기적인

⁸⁶ 이정석, 『기독교 가정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196.

⁸⁷ 고용수, 『기독교 교육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251.

⁸⁸ 김영한, 『기독교 신학 개론』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 274.

⁸⁹ 정웅섭, 『기독교 교육과 가정』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185.

관점에서 가정사역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응암교회의 목회 환경을 고려하여 가정사역을 정착시키기 위한 3개년 실행 로드맵을 제안한다. 이 표 8의 로드맵은 기반 구축 단계(1년차), 사역 확장 단계(2년차), 사역 정착 단계(3년차)로 구성된다.

구분	사역 단계	핵심 목표	주요 사역
1년차	비전 형성	가정사역 인식 전환	가정사역 비전, 부모교육 시작
2년차	사역 구축	가정 신앙 실천 형성	가정예배 정착, 가족 프로그램 운영
3년차	사역 확장	가정 공동체 형성	가정 소그룹 확대, 리더 양성

(표 5-7) 3040 세대 가정사역 3개년 실행 로드맵

첫 번째 해의 핵심 목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많은 교회에서 가정사역이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가정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회자는 설교와 교육을 통해 가정 중심 신앙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도들이 가정사역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 시기에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부모들이 자녀 신앙교육의 책임을 인식하도록 돕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향후 가정사역을

담당할 소그룹 리더들을 선정하고 기초적인 리더 훈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해의 핵심 목표는 가정에서의 신앙 실천을 실제로 형성하는 것이다. 첫 번째 해가 인식 형성과 교육 중심이었다면, 두 번째 해는 실제 가정에서 신앙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실천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회 차원에서 가정예배 자료를 제공하거나 가정예배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신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 경험을 나누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세 번째 해의 핵심 목표는 가정 간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신앙 실천이 일정 부분 형성된 이후에는 가정 간의 신앙 교제를 통해 공동체적 신앙 경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정 단위의 소그룹 공동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여러 가정이 함께 모여 말씀 나눔과 기도를 통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가정사역 리더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사역이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가정사역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목회 구조 속에 자리 잡게 된다.

이제 가정사역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연간 사역 흐름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가정사역은 특정 시기에만 진행되는 행사가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목회 사역이기 때문에 연간 운영 계획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일정한 사역 흐름을 가지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정사역을 연간 일정 속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실행 타임라인을 제안한다.



(그림 5-14) 가정사역 연간 실행 타임라인

위의 가정사역 연간 실행 타임라인(그림 5-14)은 교회가 가정사역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연간 사역 흐름을 제시한 것이다.

연간 사역의 시작은 부모교육 단계로 설정된다. 1월부터 3월까지의 부모교육 세미나와 가정 신앙교육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후 4월부터 6월까지는 가정예배 실천 단계로서 가정예배 캠페인과 신앙대화 훈련을 통해 가정에서 실제로 신앙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7월부터 9월까지는 가족 신앙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신앙 경험을 제공한다. 가족 신앙 캠프나 부모·자녀 신앙 활동은 가정 공동체의 신앙적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는 가정사역을 평가하고 다음 해 사역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연간 사역 구조는 가정사역이 단순한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목회 사역이 되도록 돕는 중요한 운영 틀이 된다.

VI. 결론 및 제언

A.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한국교회 3040 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사역의 신학적 기초를 정립하고, 이를 실제 교회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목회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현대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의 위기라는 중요한 목회적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교회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신앙 형성이 약화된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이 신앙 형성의 중요한 공동체라는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는 가정사역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한국교회와 3040 세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세대 이론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세대가 형성되는 사회문화적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서 3040 세대가 가지는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3040 세대가 산업화 이후 성장한 세대로서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 속에서 신앙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 변화와 신앙 환경을 살펴보았다. 현대 사회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가족 구조는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 구조에서 핵가족 중심 구조로 변화하였으며,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자녀 양육 환경의 변화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전수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교회가 가정사역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3040 세대의 교회 인식 변화와 이른바 ‘가나안 성도’ 현상을 분석하였다. 최근 한국교회에서는 교회 출석을 중단하거나 교회 공동체와 거리를 두는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3040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의 약화와 교회 사역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교회가 새로운 목회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3040 세대의 신앙 특징과 목회적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 세대는 개인의 삶과 신앙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정과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3040 세대의 삶의 현실을 고려한 목회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가정 중심 신앙 형성을 지원하는 사역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응암교회의 3040 세대 사역 사례를 분석하였다. 응암교회의 역사와 현재 사역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 환경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교회가 다양한 교육 사역을 진행하고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중심 신앙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사역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목양 사역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응암교회 3040 세대 성도들의 신앙 현실을 분석하였다. 많은 3040 세대 성도들이 자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부모들은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가정예배나 신앙대화와 같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논문의 출발점이 되는 응암교회에서 진행되었던 영패밀리 사역 사례를 분석하고 그 실패 요인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영패밀리 사역은 초기에는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장기적인 사역 구조와 지속적인 목회 전략이 부족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가정사역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목회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제Ⅳ장에서는 가정사역의 성경적·신학적 기초를 살펴보았다. 성경은 가정을 단순한 사회적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앙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구약성경은 신앙의 대물림을 강조하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신약성경은 가정과 교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임을 강조하며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가정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경적 이해는 현대 교회가 가정사역을 중요한 목회 사역으로 이해해야 할 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김영한 교수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상호 협력할 때 다음 세대 신앙 형성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교회와 가정의 협력 구조가 신앙교육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⁹⁰ 또한 정웅섭 교수는 가정이 신앙 형성의 중요한 환경이며 교회가 가정을 신앙교육의 파트너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⁹¹

제Ⅴ장에서는 이러한 신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3040 세대를 위한 가정사역의 목회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교육, 가정예배 회복, 가족 중심 신앙 프로그램, 소그룹 기반 가정 공동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한 가정사역 모델을 제안하였다. 특히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의 신앙을 회복하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정사역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⁹⁰ 김영한, 『기독교 신학 개론』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 281.

⁹¹ 정웅섭, 『기독교 교육과 가정』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194.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VI장에서는 이러한 목회 모델을 실제 교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응암교회를 중심으로 가정사역을 적용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준비 단계, 교육 단계, 실행 단계, 정착 단계로 구성된 실행 전략을 통해 교회가 점진적으로 가정사역을 도입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가정 중심 신앙 형성을 위한 목회 전략이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위한 중요한 사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B. 한국교회 가정사역에 대한 목회적 함의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가정사역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목회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교회는 가정을 신앙교육의 중요한 공동체로 이해해야 한다.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교회 중심의 교육 구조 속에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교회 교육만으로는 다음 세대 신앙 형성을 충분히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교회는 가정을 신앙교육의 중요한 동역자로 이해하고 가정 중심 신앙 형성을 지원하는 목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부모교육은 가정사역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회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가정예배의 회복은 가정 중심 신앙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가정예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중요한 신앙 실천이다. 고용수 교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실천이 자녀의 신앙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⁹² 따라서 교회는 가정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그룹 공동체는 가정사역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목회 구조가 될 수 있다. 가정 간의 신앙 교제를 통해 부모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격려할 때 가정에서의 신앙 실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C.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3040 세대를 위한 가정사역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몇 가지 한계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교회 상황을 중심으로 가정사역 적용 전략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모든 교회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교회의 규모와 지역적 환경, 성도들의 연령 구조에 따라 가정사역의 적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가정사역 모델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실제 사역 실행 이후 나타나는 장기적인 효과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가정사역을 실제 교회 현장에 적용한 이후 나타나는 신앙 형성의 변화와

⁹² 고용수, 『기독교 교육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268.

목회적 효과를 장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3040 세대를 중심으로 가정사역을 연구하였지만, 다양한 세대의 가정을 포괄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청년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정 형태를 고려한 가정사역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D. 목회자로서의 성찰과 결론적 제언

본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연구를 넘어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목회적 고민과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목회자로서 다음 세대 신앙 형성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교회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목회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가정 중심 신앙 형성을 위한 목회 전략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였고, 본 연구를 진행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중요한 사실은 다음 세대 신앙 형성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 바로 가정이라는 점이다. 교회는 여전히 중요한 신앙 공동체이지만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가정이며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앙교육자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위해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 목회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교회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목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는 신앙교육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정 중심 신앙 형성을 위한 가정사역은 현대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목회 전략이 될 수 있다. 교회가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세우고 부모들이 자녀 신앙교육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돕는 목회 사역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다음 세대 신앙 형성은 더욱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한글서적

- 고용수. 『생명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나라와 가정』. 서울: 장로교출판사, 2002.
- _____. 『기독교 교육신학』.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 김도일. 『기독교 가정교육』.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2.
- 김성중. 『가정신앙교육의 실제』. 생명의말씀사. 2016.
- 김영한. 『기독교 신학 개론』.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
- 김정우. 『구약신학』. 총신대학교출판부. 2007.
- 박상진. 『기독교교육과 신앙형성』.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7.
- 박아청. 『에릭슨의 인간이해』. 교육과학사. 2010.
- 박영돈. 『조직신학 강의』. 복있는사람. 2013.
- 박영호. 『가정과 신앙교육』. 대한기독교서회. 2010.
- 송길원 외. 『가정사역』. 두란노아카데미. 2010.
- 신형섭. 『가정예배 건축학』.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7.
-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사역』. 생명의 말씀사. 2007.
- 응암교회. 『응암교회 80년사』. 타라 티피에스. 2011.
- 이정석. 『기독교 가정과 목회』. 대한기독교서회. 2008.
- 이정효. 『목회와 신학』. 두란노. 2005.
- 장홍길. 『울림세대여 일어나서 함께가자』. 한지터출판사. 2016.

- 정성진. 『미래교회와 가정사역』. 예영커뮤니케이션. 2014.
- 정웅섭. 『기독교 교육과 가정』.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 정일용. 『기독교 가정교육』. 대한기독교서회. 2005.
- 정정숙. 『성경적 가정사역』. 베나디. 1994.
- 지용근 외. 『한국교회 트렌드 2023』. 규장. 2022.
- 차준희. 『구약신학의 이해』. 대한기독교서회. 2010.
- 최윤식. 『미래교회 전략』. 생명의말씀사. 2018.
- 최윤식, 최현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생명의 말씀사. 2014.

번역서적

- 딘, 어디스. 『성서적 가정관』. 도한호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1.
- Williams, John. 『결혼과 가정생활』. 김영배 역. 서울: 신망애출판사, 1988.
- 콕스텐버거, 안드레아스, 존스, 데이비드. 『성경의 눈으로 본 결혼과 가정』. 윤종석 역. 고양: 아바서원, 2024.

학술논문

- 김은혜. “한국사회의 가족해체와 가족신학의 정립의 필요성.” 『장신논단』 39 (2010), 223-250.
- 유지은, “한국사회의 가족 구조 변화 인식: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122 (2025), 245-274

웹사이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계위원회. “통계자료 제109회 총회보고.”

http://new.pck.or.kr/bbs/board.php?bo_table=SM02_25_06&wr_id=57&sca=행정자료#mw_basic [2025.12.30. 최종접속].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173호)-3040 세대 개신교인 신앙의식 조사.” 넘버즈.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00&page=5
[2025.12.30. 최종접속].

-----, “기독교 통계(228호)-한국교회 추적조사 2024.” 넘버즈.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13&page=4
[2025.08.25. 최종접속].

-----, “기독교 통계(231호)-개신교인의 신앙 계승 실태.” 넘버즈.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62&page=8
[2026.03.02. 최종접속].

-----, “기독교 통계(233호)-3040 세대 신앙과 라이프 스타일.” 넘버즈.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62&page=8
[2026.03.02. 최종접속].

기타 자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국내선교부. 『3040 세대 목회전략 세미나 자료집』.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23.